

↑ 코스피 2482.12 (+39.61)	↑ 코스닥 683.35 (+7.43)
↑ 금리 (연이자율) 2.579 (+0.013)	↑ 환율 (원/달러) 1432.90 (+0.70)



퇴진 거부 尹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 선포 이유 관련
“국정마비 상황, 정상화 위한
대통령 법적 권한 행사한 것
사법심사 대상 안되는 통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자진사퇴·하야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이다.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안(탄핵안)을 통과시키면 이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전 녹화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국

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당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결단을 내린 이유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관리를 언급했다. 해킹으로 선관위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면서 선거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이었음

을 시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탄핵정국 관련기사 2·3·4면〉

“외환위기 없지만 불확실성은 여전”

최상목 “韓경제 기본체력 있어
시장 충격 벗어나 비교적 안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지금의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12일 공개된 일본 닛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 경제는 기본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발 계엄 사태 이후 주식·환율의 불안정성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시장이 큰 충격에서 벗어나 지금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다.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돈의 시국 속에서도 한일 양국 간 양호한 관계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있어 “일본과의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은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반도체 장비와 소재는 일본이 뛰어난 만큼 양국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했던) 2019년과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들은 일본과 파트너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국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의 협력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인들이 내한 관광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한국에서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걱정 없이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시 시장 심리를 반전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동훈 대표 “탄핵 찬성… 그것 외에 방법 없다”

(국민의힘)

“임기 등 문제 당 일임 약속 어긴 것
당 의원들 다음 표결 때 참여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발언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의원들에게 “자유롭게 발언하세요” 라고 말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대통령이 조기퇴진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14일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입장 발표에서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소추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조기퇴진을 전제조건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구상을 제안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입장 발표가 나온 시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한 대표는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입법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

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은 계엄 직후 비상계엄에 즉각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군경의 국회 진입이 시작되자 군경에게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호소하고 국회 계엄해제 요구에 앞장섰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위헌, 위법한 개헌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 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고 계엄 종료 후에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로와 많은 정치인의 고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저는 과거 경험상, 탄핵은 여러 혼란과 반목으로 피해가 크고 오래 가며 그것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탄핵보다 더 신속하고 예측가능성 있고 질서있는 조기퇴진 등 국민과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백방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한 대표는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날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소집과 관련해 “윤리위를 소집해서 (대통령을)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라며 탄핵 찬성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준석 “尹 부정선거론 내세워 나라 절단”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 /사진 뉴스1

▲ 경찰, 합참에서 ‘비상계엄’ 자료 임의 제출 받아
▲ 제23대 진해기지사령관에 한승우 사령관 취임



▲ 박성재 “탄핵 소추 사유 전혀 동의할 수 없어” /사진 뉴스1
▲ 합참의장 “정치적 중립 유지하며 본업 임무 집중”

“계엄 전尹 만난 것 확인”... 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신청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내란중요임무중사 혐의로 신청”
김용현 보안폰 확보위해 강제수사
남태령 수방사 압수수색 진행 중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직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중요 임무중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전날 공조수사본

부를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경찰 특별수사단은 통상 절차대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바 있다.

특수특별수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폰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보안폰이 있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보안폰을 운용하는 서버가 위치한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군과 경찰에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는지 증명할 결정적 증거로 꼽힌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출범 후 첫 공조수사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을 통해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중앙지방검찰청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부터 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하자, 편성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당시 특수전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다”는 더

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R75(비행제한구역)는 평상시 제 명의로 통제한다”면서 “그것이 사전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통제하고 있었는데, 당시 계엄령이 선포돼 R75 통제 권한은 수방사가 아니라 계엄사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위 포고령에 대해 “국무회의 중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1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 내부 문자를 보고 알았다. (오후) 11시28~29분 정도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 장관이 비상계엄 시점을 언제 인지했는지, 국무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포고령 작성 등에 관여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metroseoul.co.kr



Sea of life

바다와 사람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세상
세계 최고 수산자원관리 전문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만들어 갑니다.



주요사업 | 바다숲 조성, 바다목장, 수산종자 자원관리, 국제음서버 운영,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조성,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 상고기각 1분만에 원심 확정
실형 확정 5년간 피선거권 제한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힌 뒤 1분만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날로 즉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 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총 12개 달하는 혐의를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함께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이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주의, 죄형법정주의, 공모 공동정범,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조 대표에게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경진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출석 통보 후 이른 시일 내 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규춘 기자

與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野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

尹 대통령 대국민담화 파장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 소집”
민주당 “정신적 실체 재확인”
조국혁신당 “탄핵 표결 앞당겨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사실상 조기퇴진 등 거구에 대한 사항을 이행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네 번째 대국민담화는 하야 및 자진사퇴를 거부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는 게 골자다. 이같은 입장 발표는 정치권의 더 큰 반발을 샀다.

윤 대통령의 담화에 여야 정치권은 술렁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날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그담화를 보고 당에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14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국민의 힘에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는 온갖 거짓말로 극우 태극기 부대를 선동해 국민과 맞서 싸우라는 저급한 선동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부정선거론을 내세워 나라를 절단 내는 걸 보니 착잡하다”며 “이제 보수정치권 싹 분리 수거하고 갈아엎는 방법 밖에 없다. 우선 부정선거론자 싹 갖다 버리자”고 강조했다.

정치권 밖에서도 윤 대통령의 담화에 부정적인 입장이 확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담화 발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TV화면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뉴스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실시한 선관위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거나 마찬가지였다는 발언도 했다”라며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탄핵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담화는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를 호소하고, 탄핵안 통과 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심의 등을 고려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외신들도 윤 대통령의 12일 대국민담화문을 긴급 타전하며 국내 정치상황에 관심을 보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재명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

민주당·경제단체 긴급 간담회
손경식, 김기문, 송치영 등 참석
“더 큰 피해 입지 않도록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제단체 대표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직격탄을 맞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경제단체 긴급간담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강준현 정부위 간사, 김원이 산자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가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자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간담회를 열고 “상황이 매우 어렵다.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라며 “왜 매년 희생은 경제 뒀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곧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연말대목인데, 기업도 기업이지만 골목상권조차도 매우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율, 주식, 자본시장 문제

는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고 (당의) 외부 각종 대책단위들이 있는데, 대안을 나름 마련하고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도 하고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정부에 제안도 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현장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귀담아 듣고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박성재·조지호 탄핵안 가결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네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을 표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후보는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여당을 배제한 고립단체와 비교집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도 진행됐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됐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들의 직무는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정지된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선출

“탄핵 표결, 의총 통해서 결정”

원조 친윤(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이 12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권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이날 긴급 입장 발표에서 밝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당론 ‘찬성’과 윤 대통령 출당과 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에 선을 그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는 총 투표수 106표 중 권성동 원내대표가 72표, 김태호 후보가 34표로 당락이 갈렸다. 여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는 친윤계를 대표하는 권 원내대표와 친한계의 지지를 받는 김 후보의 대결로 관심이 모아졌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후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출당과 제명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 한 대표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

는 것에 대해서는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며 “이를 바꾸려면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총을 열어서 총의를 모아보겠다”라고 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할 것이냐는 물음엔 “그 부분은 의총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의원 각자의 의견은 존중 받아야 하지만, 중요 사안에 대해서 단일대오가 가야 한다. 모든 것을 의총을 열어서 중지를 모으려 총의를 모아서 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필요시 시장심리 반전할 수 있도록 대응”

>> 1면 ‘의환위기 없지만...’서 계속

정부는 최근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외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소상공인·부동산·건설업계 등에도 현 경제상황과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을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대한 해외의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트럼프 재집권, 中 저가공세, 고환율... 국내 정치 혼란까지

M-커버스토리

배터리·철강·석화 '고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내 산업계의 경제적 리스크가 번지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기업들이 확보한 해외 거래선과 투자자들의 신뢰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다. 특히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대외 환경 변화에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에서 정치적 혼란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따른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주요 산업의 투자 유치와 관세 완화, 기술 협력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정치적 혼란이 협상 조건을 불리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국내 기업들은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사업·투자 계획 등을 재점검하며 만반의 조치를 기하는 모양새다.

◆ "해외사업 비중 90%"... 배터리업계, 환율 변동 리스크 커져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려되는 업종 중 하나는 배터리 산업이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달러 부채로 막대한 환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배터리업계, 원자재 수입 비용 부담 미국 IRA 보조금 축소 가능성 높아 생산 다변화·미국 외 지역 투자 확대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3분기 기준 달러 부채는 약 6조 8283억원 수준이다. 전 분기 부채(4조 2179억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삼성SDI는 달러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연내 미국 스텔란티스 합작공장(JV) 가동을 계획하고 있어 강달러 기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SK온 역시 올해 3분기 말 기준 달러 부채가 전 분기(2조 5695억원) 대비 증가한 3조 4379억원을 기록했다.

또 국내 배터리 사들은 리튬, 니켈, 코발트



LG에너지솔루션·GM의 미국 합작법인 엘티엠셀즈의 오하이오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LG에너지솔루션

등 핵심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환율상승은 원자재 구매 비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공장 투자를 재검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한 정책 변화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긴급계엄 선포로 인한 불안정한 시장 상황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보조금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미 협상의 골든타임을 붙잡아야 하는 데 정치적 불안정 요소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특히 국내 배터리사들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로 실적을 지탱하고 있어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3사의 올 1~3분기 AMPC 누계액은 총 1조 3787억원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AMPC가 없으면 영업적자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사업이 해외 비중이 큰 만큼 국내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차전지 업종에 대한 사업 기반이 대부분 선진국 중심으로 해외 현지화돼 있다는 점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이차전지의 해외 사업 비중이 90%에 달하기에 환율 변동에 매우 민감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다"라며 "트럼프 당선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의 불안정이 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철강업계, 中 저가 공세에 고환율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

철강업계는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에 밀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더해져 어려움이 한층 깊어졌다. 현재 업계는 생산량 조절에 나서며 수익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철강재 원재료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공장 문을 닫는 상황에 직면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산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포스코는 지난 11월 올해 포항제철소 내 공장 2개를 폐쇄 결정한 바 있다. 현대

제철도 경북 포항 2공장 가동 중단을 추진했다.

철강업계, 고환율로 원재료 수입 비용 ↑ 감산 조치에도 수익성 회복 어려움 정부-업계 협력 강화·신속 정책 실행

철강사들은 철광석과 원료탄 등 수입 원재료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품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원재료 구입에 사용하는 '내추럴 헤지' 전략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철스크랩 등의 자급률을 높여 환리스크를 줄이는 방안 등 강달러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특히 철강업계는 이전부터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해당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석화업계, 정부 지원 기대했으나... 불안정한 정치 상황 직면

석유화학업계 역시 비상계엄과 급등 중인 환율로 인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업황 부진 장기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원가 부담까지 안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는 여전히 손익분기점인 톤당 300달러를 밑돌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석화업계는 정부의 시황 개선책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비상계엄령 사태로 인해 미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지난 4월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협의체'를 출범하고 금융정책 및 세무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석화업계, 환율 상승·해외 공급 과잉 기존 업황 부진 맞물린 경영 위기 비핵심 자산 매각 통한 재무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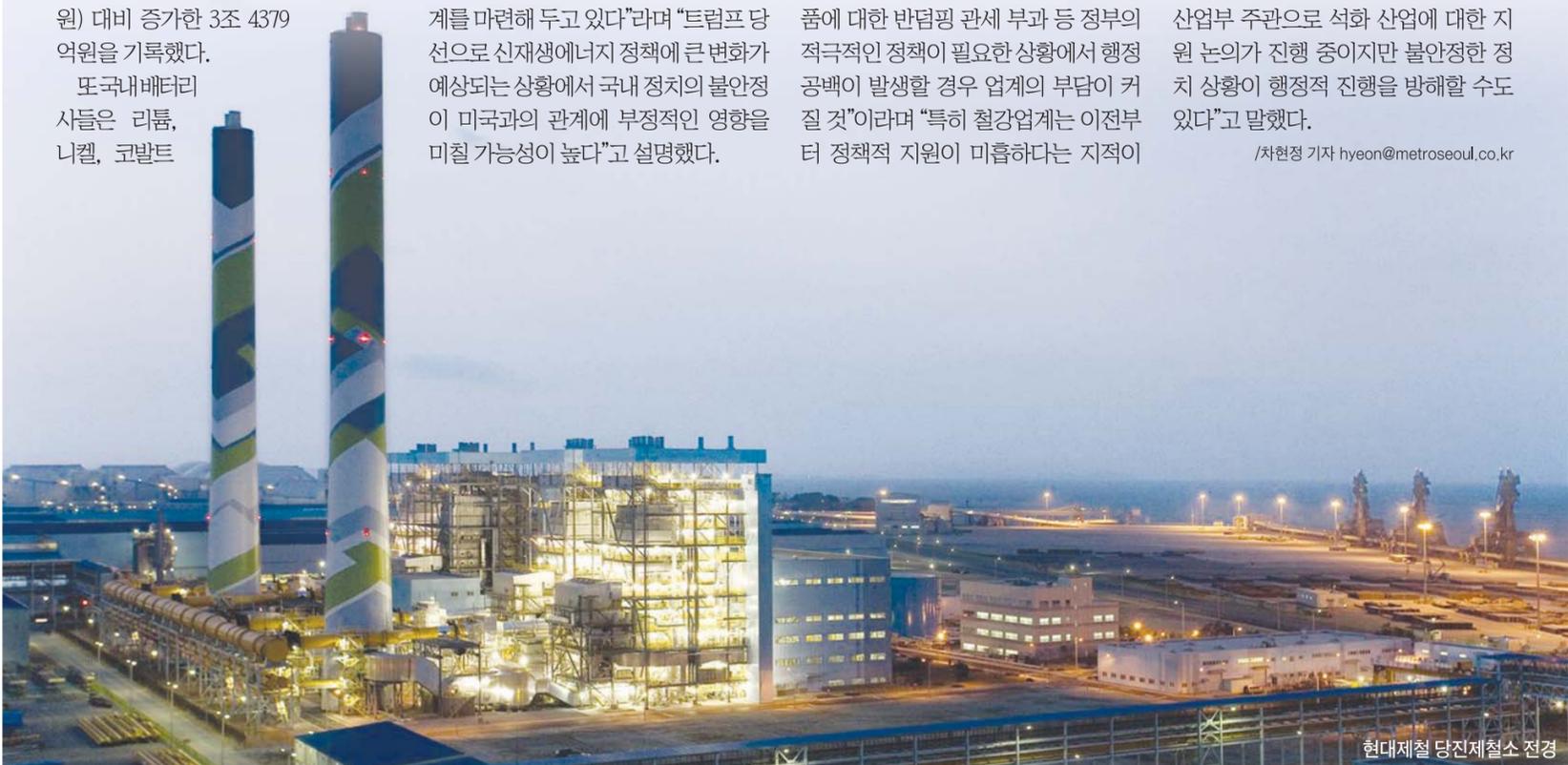
산업부는 이달 중 지원방안 발표를 예정했으나 비상계엄령 이후 탄핵 정국이 장기화돼 지원책 실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업계는 이미 고강도 재무개선과 투자 축소, 비핵심 자산 매각 등 방어적 경영에 돌입했으며, 해당 전략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석화기업들은 정부 지원책 발표를 기다리고 추가 사업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분기 적자 폭이 컸던 롯데케미칼은 재무건전성 강화, 자산 경량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합성고무 생산법인 LUSR 청산을 결정했고, 해외 법인 지분 매각을 통해 총 1조 4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LG화학도 올해 초 여수 스티렌모노머(SM)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여수 NCC 2공장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인해 이미 석화 제품 가격과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 불안정이 경제활동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석화 산업에 대한 지원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행정적 진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55세 이후 삶을 위한 NH농협은행 퇴직연금

확신의 중심에



평생 든든한 NH농협은행 개인형 IRP로 55세 이후 삶에 확신을 더해보세요

든든함을 플러스

무디스 신용등급 Aa3의 평생 믿을 수 있는 NH농협은행 퇴직연금

솔루션을 플러스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및 예금부터 ETF까지 폭넓은 투자 상품

세심함을 플러스

전국 영업점을 통한 세심한 사후관리 및 다양한 추가 서비스

[퇴직연금 상품 유의사항] • [DB] DB제도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 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2015년 12월 1일부터 금융기관별 개인형 IRP 계좌를 1개로 제한하는 1사1계좌가 적용됨에 따라 농협은행에 개인형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2시)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 전용콜센터 (1588-5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담당부서: 퇴직연금부] 중점감사인 심의필: 2024-6032 [2024.11.19~2025.11.15]

생성형 AI 규제 완화에 노점은 은행권

연중무휴 점포 등 AI 은행원 확대

신한은행, 'AI 브랜치' 연중무휴 운영
KB국민은행, 송금 사전 예방 시스템
카카오뱅크, 대화형 금융 계산기
우리은행, 주담대 상품 상담에 도입
금융위, 금융권 AI 협의회 열어
금융기관 내부망서 오픈소스 AI 허가

은행권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낸다. 올 하반기 들어 각종 규제 철폐로 광범위한 AI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각 은행은 AI를 활용한 연중무휴 점포, 대화형 금융 계산기, 보이스 피싱 예방 등 AI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생성형 AI의 업무 활용을 늘리고 있다. 각 은행이 AI 은행원을 활용한 휴일 없는 지점, 보이스피싱 감지 및 예방, 대화형 금융 계산기 등을 선보이는 가운데 AI가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주담대대출 상품도 등장했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의 규제 축소로 금융기관의 AI 활용 문턱이 낮아지면서 각 은행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은행이 경영효율화를 위해 영업점 통폐합 및 비대면 거래 보급에 힘썼던 만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차별화를 위해 서비스 개발에 힘쓰는다는 관측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AI은행원을 활용한 연중무휴 점포를 개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1일 시청역에 'AI 브랜치'를 개점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AI 브랜치에서는 AI 은행원을 통해 예·적금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환전 등 일부 창구업무를 이용할 수 있



지난달 시청역에 문을 연 '신한은행 AI브랜치'에서 직원이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신한은행 AI브랜치에서는 AI상담원이 창구 안내부터 상품 설명 및 가입까지 전 과정을 무인으로 제공한다. /뉴시스

다. 신한은행은 향후 AI 은행원에 실시 간 번역, 금융사기 예방 등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AI를 활용 중이다.

비대면 거래 시 이상 패턴을 감지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를 탐지하고,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의 송금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카카오뱅크는 간편한 금융상품 비교를 제공하는 '대화형 금융 계산기'를 개발 중에 있다.

대화형 금융 계산기는 각종 여·수신 상품 이용 시 금리 등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대출액과 금리, 대출 기간 등을 대화창에 입력하면 월 납부 예상 금액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계산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생성형 AI를 모바일 뱅킹 내 주담대대출 상품 상담에 도입했다. 우리은행 모바일 앱 '뉴우리WON뱅킹'에 도입된 'AI뱅크' 서비스는 주담대대출 상담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기존 챗봇 상담과 달리 대화 형태로 대출 상담을 진행하며,

소비자의 각종 질문에 실제 대출 담당 직원이 상담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답변을 제공한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AI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해 규제 축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명동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 협의회'를 열고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망 분리, 보안 규제 등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활용이 어려웠던 오픈소스 AI를 금융기관 내부망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활용도가 높은 오픈소스 AI를 별도로 선별 및 검증하는 별도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내에 구축하는 내용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은 AI 인프라 및 데이터 부족,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거버넌스 부재 등 애로사항을 제기해 왔다"며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AI 인프라, 금융권 특화 데이터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금융회사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후 항공기 공급좌석 90% 이상 유지해야

(2019년 대비)

공정위, 슬롯·운수권 시정조치 수정
마일리지 전환비율 2년 내 결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을 승인받는 대신 항공기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향후 2년 이내 두 회사 통합 전까지 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5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부과했던 일부 시정조치를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변경·구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결합회사의 연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한 연간 좌석 수가 1만석이라면, 앞으로 최소 연간 9000석 이상 공급해야 한다. 이는 2019년 대비 올해 상반기 공급 좌석수(91.5%), 탑승객 수(94.4%), 항공기 보유대수(93.4%) 비율을 반영한 것이다.

일부 노선에 부과한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시정조치도 수정됐다. 2022년 당시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 탄생 시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할 경우 슬롯·운수권을 당국에 반납토록했다. 당시 반납은 '기업결합 이후'부터 이행하도록 했는데,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라 '결합일 이전'에 있던 일도 시정조치 이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운수권·슬롯 반납은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한 시정조치도 신



11일 인천국제공항 전광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 모습. /뉴시스

청이 없더라도 반납하도록 수정했다.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이전에 부과한 반대한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마련해 시정조치 이행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양사간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보고받고, 통합 항공사로 출범하는 향후 2년 내 전환 비율을 정하는 등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태도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아시아나항공 1마일리를 대한항공 0.7마일리지로 전환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직 마일리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해 협의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구체화함에 따라, 2021년 1월 시작된 두 회사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여 만에 종결됐다. /세종=한홍수 기자 hys@

올해 감사인 선임 위반 기업 264곳

금감원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올해 외부 감사 대상 회사, 4.2만곳

12월 결산법인의 외부 감사인 선임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회사 유형별로 다른 선임 기한과 감사인 자격 요건 등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한 회사는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10월 기준 외부 감사 대상 회사는 4만 2122곳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3만 1744곳에서 2021년 3만 3250곳, 2022년 3만 7519곳, 2023년 4만 1212곳으로 증가했다.

감사인 선임 관련 위반으로 인한 감사인 지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10월까지 264곳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됐다. 지난해 122곳보다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

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나 금융회사 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또한 주권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는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3년 동안 회사종류가 바뀌었다면 바뀐해를 기준으로 다시 절차를 거쳐 3년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등록 회계법인 40개사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형비상장회사나 금융회사는 등록 법인이 아니더라도 회계법인만을 선임할 수 있다.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는 감사인 선임에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면 회사가 선정할 수 있다.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허정원 기자 zelkova@

뜨거워지는 지구, 미흡한 기후테크 혁신

한은 '기후변화 대한 역할' 심포지엄
탄소저감 기술 특허, 일부 싹트기 시작
특허출원 인용 저조... 질적평가 '미흡'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탄소중립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출되는 양과 흡수되는 양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배출을 없애는 것이다.

한국은행 최이슬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12일 열린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을 위한 기후테크의 혁신이 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상품의 생산을 줄이거나 ▲상품의 생산규모는 유지하되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후자



를 위해선 탄소저감기술을 개발·적용하는 기후테크 혁신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특허가 일부 기업에만 쏠려 있는 등 과급력이 낮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35%)과 일본(27%)에 이어 세계 3위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기후테크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해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2010년대 초중반 이후 기후테크 특허출원이 정체되거나 소폭 감소

하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시기 중국과 함께 특허출원 증가세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은 상위 4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4개 기업의 기후테크 특허출원 비중은 72.1%로 10대 선도국 평균치인 29.7%를 크게 상회했다.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한 네덜란드(46.5%)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특허출원의 인용도 저조했다. 2011년부터 2021년 중 국가별 기후테크 특허의 질적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건당 피인용건수는 중위권에 속했지만 선두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컸다. 최근 기후테크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보다 질적성과가 낮았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기후테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의 R&D 지원 강화 ▲탄소가격의 실효성 제고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INTELLIGENTLY CONNECT

인공지능에서 연결지능으로

단순히 AI를 만드는 것을 넘어
AX로 고객의 일상에 혁신을 더하기 위해

유플러스는
사람과 기술을 지능적으로 연결하여
당신에게 딱 맞는 연결 경험을 제공합니다

소통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부터
비즈니스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까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유플러스만의 AX 혁신은 계속됩니다

**GROWTH LEADING
AX COMPANY**

LG U+

ixiO

ixi-GEN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험로... 노조·자본 리스크 관건

메리츠, MG손보 매각 우협 선정
MG손보 노조, 고용승계 요구·반발
우협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추진
메리츠 “실사 거쳐 부실뎀 중단”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의 구원
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인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
사는 지난 9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
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앞서 네 차례의 매각 입찰에 실패한 후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보
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후 매
각 절차가 진행됐다. MG손해보험은 예

금보험공사를 통해 네 차례 공개 매각
에 나섰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8월 제3차 공개매
각 재공고에 참여했다. 여러 차례 공개
매각에 실패하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8월 수의계약으로 전환했고 MG손해보
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
를 선정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개사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요청액, 계약 이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자
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자 선정에도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는 순탄치 않을 전망
이다. 매각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과 높
은 비용 지출로 인해 인수 리스크가 발
생해서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인수 참여와 함께

MG손해보험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
다. MG손해보험 노조는 전 직원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메리츠화재가
자산부채이전(P&A)방식을 통한 인수
가능해져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P&A방식은 인수합병(M&A) 방식
과 달리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인수 대
상 기업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
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MG손해보험 노조는 지난 11일 ‘메
리츠화재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철회 촉
구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한
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 노조는 “예금보험공사
가 고용 해결 방법에 대해 어떠한 계획
도 없이 고용 의무가 없는 매각을 진행

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전 직원 및 임
직원들이 모여 예보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MG손해보험의 부실한 자본 상
태도 리스크로 작용한다. MG손해보험
의 올해 2분기말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
(K-ICS·키스) 비율은 44.42%에 불과
하다.

이에 따라 예상 매각가는 2000억~
3000억원 수준이었으나 금융당국의 권
고치인 150%를 맞추기 위한 자본 확충
에는 최대 1조원의 자금 투입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5000억원 규모
의 공적 자금지원이 가능한 것을 감안
하면 인수금액은 실질적으로 5000억~
6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메리츠화재는 향후 실사 과정을 거쳐

인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나 MG손보
보험의 부실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면
인수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은 지난달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주당 이익
을 증가시키고 주주 이익에 부합할 경
우에 완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단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최종
인수하면 업계 2위인 DB손보와의 격차
를 좁힐 전망이다. 메리츠화재는 새 국
제회계기준(IFRS17)상 보험사의 주요
경영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지난해 말 기준 10조4687억원이다. M
G손해보험(6774억원)과 합치면 11조
1461억원으로 DB손보(12조1524억원)
와의 격차를 좁히게 된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수협銀 지주설립 첫 단추... 신학기號 라인업 완성

수석부행장에 도문욱 등 인사 단행
기업 연체율 올라 건전성 확보 과제

신학기수협은행장(사진)이 손발을 맞
출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2년간 금융지
주설립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만큼 시간
이 촉박하다. 자회사 인수합병(M&A)을
예고한 만큼 건전성 확보도 요구된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협은
행은 부행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신
학기 행장과 호흡을 맞출 수석부행장에
도문욱 부행장을 낙점했다. 신 행장 또
한 강신숙 전 수협은행장 체제에서 수
석부행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도 부행장은 1967년생으로 세종대에
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1994년 수협중
앙회에 입회해 ▲수산금융기획팀장 ▲
해양선박금융팀장 ▲글로벌외환사업부
장 ▲종합기획부장 ▲투자금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신 행장과는 기획부장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과 경남 출신이라
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노동진 수협
중앙회장 또한 경남 진해 출신이다.

도 부행장을 낙점한 배경에는 지주설
립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도 부행장이 과거 투자금융
본부장직을 수행한 만큼 인수금융에 관



또한 수월할 것이란 의견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도 부행장은 수
협은행에서 종합기획부장 등을 지내면
서 재무와 기획에 능통하다”며 “수산해
양금융부를 총괄 지휘하면서 능력을 입
증한 만큼 역량을 발휘할 시기가 온 것”
이라고 설명했다.

장문호 신임 부행장은 제주출신이다.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했다. 여
신정책부장과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등을 수행했다. 오미석 신임 부행장은
전남출신이다. 1970년생으로 1995년 수
협중앙회 입회해 순천지점장, 감사팀
장, 수산해양금융부장 등을 지냈다.

김혜근 신임 부행장은 전북출신이다.
1991년 수협중앙회 입회해 디지털
운영팀장, IT지원부장, IT개발부장 등
을 수행했다. 업계에서는 금융IT분야
에서 잔뼈가 굵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권 전반에 걸쳐 디지털전환(DT)
에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무가 막

한 전문가로 통한다.

경남은 대한민국 ‘수
산 1번지’다. 수협이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
는 만큼 현안 파악과
외부 네트워크 작업

중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손발을 맞출 부행장 인사가
결정된 가운데 당장의 과제는 건전성
확보다. 지난 9월말 기준 수협은행의 연
체율은 0.54%다. 전년 동기(0.43%)대
비 0.11%포인트(p) 상승했다. 이 중 가
계대출 연체율은 0.49%로 연간 0.22%
p 상승했다. 연간 기업대출 연체율이
0.06%p 오른 점을 고려하면 상승세가
가파르다.

실적 또한 무시하기 어려운 지표다.
올 3분기 수협은행의 누적순이익은
2120억원이다. 작년 동기 대비 2.61%
감소했다.

신 행장은 취임식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
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지주설립 요건
을 맞추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
이된다. 금융권에서는 강 전 행장이 역
대급 수익을 거두며 실적 측면에서 ‘합
격점’을 받았던 만큼 건전성과 영업을
동시에 확대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협중앙회가 공
적자금 상환 후 지주설립을 우선과제로
두고 있고 역대급 실적에도 행장 교체 수
순을 밟았다”며 “능력 위주의 인사로 평
가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멈출 줄 모르는 서울 집값, 38주째 올라

아파트 매매값 0.02% 상승
매매수급지수는 8주째 하락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8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8주째 하락
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
향’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9일 기준) 서
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오르면서 38주 연속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마포구
(0.06%→0.02%)가 공덕·대흥동 역세
권 단지, 성동구(0.05%→0.02%)는 성
수·옥수동, 도봉구(0.02%→0.02%)는

도봉·방학동, 용산구(0.05%→0.04%)
는 한강로3가·이촌동 주요단지, 광진구
(0.06%→0.07%)는 광장·자양동 정주
여건 우수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서초구(0.04%→0.07%)
는 서초·반포동 주요단지, 양천구
(0.05%→0.03%)가 목·신정동, 강남구
(0.12%→0.07%)는 압구정·개포동 재
건축 추진 단지, 영등포구(0.05%→0.
04%)는 신길·여의도동 위주로 상승세
가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염리동에 위치한 ‘마포
프레스티지자이’는 11월 전용면적 59㎡

가 17억6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5월
매매가격(16억1800만원) 대비 1억4700
만원 상승했다.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 7단지’의 경우 이달 전
용면적 101㎡가 25억8000만원에 거래
되면서, 1개월 만에 5500만원 올랐다.

12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6으로 전주(99.2)보
다 0.6포인트 내렸다. 등락을 반복하다
10월 셋째 주부터 8주 연속 지수가 하락
세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
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
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지원 기자



12일 오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아홉번째), 최호정 서
울시의회 의장(여덟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 중이다. /전지원 기자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첫 삽 오세훈 시장 “상전벽해 수준 대개조”

“착공 다행... 3300억 기여 예정
39층 MICE사업 선도 시설 건립”

“상전벽해 수준의 대개조를 맞이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현장에서 열린 착공식
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강북의 코엑스라
는 수식어를 걸고 2008년 추진한 ‘서울
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16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오 시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서울역
일대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2008년 서
울을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
광·컨벤션·전시회) 산업의 허브로 성장
시키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코레일과 손
잡고 개발 구상을 발표하고 추진한 사
업이다.

오 시장은 “당시 바로 착공하지 못하
고 16년이나 늦어진 것에 대해 매우 안
타깝게 생각한다”며 “우여곡절 끝에 다
시 시동을 걸고 오늘 착공식을 하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고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약 3300억원의 공공기여가 예
정돼 있어 서울역 일대와 지역 노후시
설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역
근처 뿐만 아니라 중구에도 새로운 변
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며, 강북
의 코엑스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국제적

수준의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날 것”이
라고 설명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저이
용 철도부지(면적 약 3만㎡)에 강북권
최초 2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전시·
국제회장을 갖춘 국제문화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오는 2029년 준공
을 목표로 한다.

최고 39층 규모로 국제컨벤션, 호텔,
업무, 판매 등 도심권 MICE 사업을 선
도할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2021년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를 통해 개발 및 공공기여 계획이 마련
됐다. 3384억원이 인프라 확충, 균형발
전 유도를 위한 장기 미집행시설 및 소
외·낙후지역 정비 등에 투입된다.

이 사업은 한화임팩트, 한화, 한화커
넥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출자해 설
립한 개발목적 법인인 서울역북부역세
권개발에서 시행한다. 한화건설 부문이
건설공사를 맡는 등 한화그룹 계열사들
이 주축이 되어 추진 중이다.

서울역은 KTX와 공항철도의 출발
역이자 GTX 등 광역철도가 신설되는
파견 중심지인데 반해 미관과 그 기능
이 열악한 상황이다. 해당 사업으로 철
도 지하화 추진 및 주변 지역 재개발 정
비사업 등으로 대대적인 공간 변화가
예정돼 있다.

/전지원 기자 jiw13@

삼성전자, '갤럭시 북5 Pro' 공개... "AI PC 시장 이끌 것"

북 시리즈 최초 'AI 셀렉트' 탑재
갤럭시 모바일 제품 연결성 강화
14형·16형 2종... 내달 2일 출시

흐릿한 조선시대 당시 풍경 사진이 고화질로 변환되며 마치 최근 사진처럼 변신했다. 20년 전 서울의 모습을 담은 오래된 사진도 마치 오늘 찍은 듯한 선명한 사진으로 바뀐다. 화면에 보이는 명동성당 사진 위에 손으로 원을 그리자 명동성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PC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 그간 볼 수 없던 새로운 AI 기능을 추가해 성능을 향상했고, 스마트폰·태블릿과 연결을 강화한 신제품으로 AI PC 시장 내 영향력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다.

삼성전자는 12일 신형 AI PC '갤럭시 북5 프로(Pro)'를 첫 공개했다. 갤럭시 북5 프로는 인텔과 협력해 출시된



'갤럭시 북5 Pro'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삼성전자 MX사업부 갤럭시 에코 비즈 팀장 이민철 상무(왼쪽)와 인텔코리아 삼성사업총괄 백남기 부사장 12일 '삼성 강남'에서 진행된 '갤럭시 북5 Pro' 미디어 브리핑 행사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만큼 삼성은 이번 AI PC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3분기 글로벌 AI 탑재 PC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49% 증가한 1330만 대를 기록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AI PC 출하량은 2024년 5000만 대에서 2027년 1억6700만대까지 3년간 2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글로벌 AI PC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신제품에 다양한 AI 기능을 탑재했다. 이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갤럭시 AI 기능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Copilot+) PC 기능을 모두 탑재해 AI 가동 성능을 끌어올린 점이다. 최대 47 TOPS(초당 최고 47조 회 연산)의 NPU를 지원하는 AI 칩 루나레이크를 탑재했다.

이민철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

업부 갤럭시 에코 비즈 팀장(상무)은 "성장하는 AI PC 시장 상황 속에서 갤럭시 AI 기반으로 대중화를 이끌 '갤럭시 북5 Pro'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선보여 기쁘다"며 "다양한 제품에 갤럭시 AI를 확대 적용하며 독보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AI 셀렉트'다. 삼성전자는 신제품에 AI 셀렉트를 갤럭시 북 시리즈 중 최초로 탑재했다.

이는 궁금한 이미지 또는 텍스트가 있을 경우 별도 검색어 입력 없이 터치 스크린에 원을 그리거나 드래그해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 웹 브라우징, 쇼핑, 콘텐츠 감상 등 검색이 필요한 여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 이미지 안의 텍스트만 따로 복사

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카페 메뉴판 사진을 찍은 뒤 메뉴판의 텍스트를 복사해 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갤럭시 북5 Pro는 강력한 NPU 성능을 기반으로 한 AI 업스케일링 '사진 리마스터' 기능도 지원한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오래된 사진을 정교하게 보정하고 저화질 이미지를 고화질로 변환할 수 있다.

특히 '갤럭시 북5 Pro'는 갤럭시 AI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PC 기능을 탑재해 더욱 향상된 AI 경험을 제공한다. 또 최대 47 TOPS(초당 최고 47조 회 연산)의 NPU를 지원하는 인텔 코어 Ultra 프로세서 시리즈 2(코드명 루나레이크)를 장착해 혁신적인 AI PC 경험을 지원한다.

장소와 조명에 상관없이 깨끗한 화면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빛 반사 방지 패널도 탑재했다. 또한 노출 시간이 다른 세 개 프레임들을 하나로 합친 '스타게드 HDR'을 카메라에 신규 적용해 깔끔하고 선명한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갤럭시 모바일 제품과의 편리한 연결도 지원한다. 갤럭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과 연결해 ▲사진·문서·파일을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빅 웨어' ▲PC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제어할 수 있는 '멀티 컨트롤' ▲PC 화면을 태블릿에 확장하거나 복제해 듀얼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는 '세컨드 스크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폰 링크' 기

능을 활용해 갤럭시 북5 Pro와 갤럭시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서류 투 서치 ▲노트 어시스트 ▲실시간 통역 등 스마트폰에서 지원되는 '갤럭시 AI'의 다양한 기능을 PC의 대화면에서도 즐길 수 있다.

이번 신제품은 최대 25시간 동안 사용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다. 삼성 관계자는 "기존 제품들은 CPU, GPU, NPU가 합쳐진 파일 외에 메모리칩을 따로 탑재했다면 이번 신제품은 인텔과 협력해 메모리칩까지 더해진 파일 하나만 탑재해 배터리 사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인텔과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AI PC 시장의 대중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백남기 인텔코리아 삼성사업총괄 부사장은 "양사는 지난 30년간 PC 사업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온 만큼 앞으로도 AI PC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무는 "성장하는 AI PC 시장 상황에서 갤럭시 AI 기반으로 대중화를 이끌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다양한 제품에 갤럭시 AI를 확대 적용해 독보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갤럭시 북5 Pro는 내달 2일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크기는 35.6cm(14형), 40.6cm(16형), 색상은 그레이와 실버 각각 두 가지로 구성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포스코퓨처엠, 전극봉 제조기술 국산화 성공

직경 300mm 고품질 UHP 제조
민관협력 대표 성공사례 평가

포스코퓨처엠은 철강 생산공정의 필수 소재인 전극봉 제조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의 제철공정 부산물인 콜타르로 만든 침상코크스를 활용해 직경 300mm 고품질 UHP(초고전력)급 전극봉 제조 기술을 국산화했다.

이번 국산 전극봉 개발은 민관협력의 대표 성공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300mm 이상급

인조흑연 전극봉 기술 개발' 국책 과제에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4년 9개월 간의 연구개발 끝에 이뤄낸 성과다. 포스코퓨처엠은 향후 시장 상황에 맞춰 전극봉의 사업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동 참여한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은 제품·공정 개발 및 제조설비 구축을 맡았고 포스코MC머티리얼즈와 포스텍 가속기연구소, 금오공대는 원료 물성 개선 및 제조 공정 최적화, 시제품 개발을 담당했다.

전극봉은 고부가가치 탄소소재로 전기 제강공정에서 철 스크랩을 녹여

쇳물을 만들거나, 용광로에서 생산한 쇳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련 공정에 사용된다. 전극봉은 전기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전극봉의 직경이 크고 전극 밀도가 높을수록 전력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국내 철강업체는 매년 3만 톤 이상의 전극봉을 전량 수입해 왔고 이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제조 기술 국산화가 국내 철강산업 생산 체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제철, 탄소저감 열처리 기술 개발

정부 신기술인증 획득

현대제철은 현대차와 탄소저감 열처리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정부의 신기술인증(NET)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 설계와 열처리 양산 설비 최적화를, 현대차는 기술 아이디어 제시와 부품화 제조 기술 평가를 맡았다. 결과적으로 공정 시간을 78% 단축하고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해당 기술은 오는 2025년부터 양산되는 팰리세이드, 투싼, 쏘나타, 아반떼 등 차량 부품에 적용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독자개발한 열



신규 열처리 기술을 개발한 현대제철-현대차 직원들이 신기술인증을 받은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현대제철

처리 기술에 대한 신기술인증을 획득해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차동기어 외 다양한 소재에 해당 기술을 확대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모비스, CES 참가... '휴먼 테크' 기술 선보인다

전략 제품 16종 전시 예정

현대모비스가 매년 초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각축장이 됐던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에서 '휴먼 테크' 기술을 선보인다.

현대모비스는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모비스의 이번 CES 주제는 'Beyond and More'(비욘드 앤드 모어)



현대모비스 CES2025 전시부스 조감도.

로, 사람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휴먼 테크'를 통해 색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전시 부스 디자인도

물리적 경계를 허문다는 의미에서 투명함을 강조했다.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되는 주요 휴먼 테크 기술은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휴먼 센트릭 인터리어 라이팅 시스템 ▲뇌파 기반 운전자 부주의 케어 시스템(엠펙스)이다.

아울러 현대모비스는 '프라이빗존'을 운영해 글로벌 수주 대응을 위한 전략 제품 16종을 전시하고 고객사 맞춤형 영업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현대오토에버, 국내 최초 'SOTIF' 인증

(자율주행차 안전성 국제 표준)

기업 컨설팅 등 신사업 박차

현대오토에버가 글로벌 수준의 자율주행 안전성 기술력을 확보하며 미래차 시대 준비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오토에버는 12일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국제 표준 인증인 'SOTIF'(ISO 21448)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SOTIF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22년 제정한 기준으로, 예측하지 못

한 돌발 상황에서도 자율주행 시스템 또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 안전하게 작동하는지를 평가한다.

현대오토에버가 인증받은 대상은 자율주행 시스템과 밀접한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산출물 40여 종이다.

현대오토에버는 이번 인증을 발판으로 자율주행 시스템과 ADAS를 개발하는 기업들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마세라티 “레이싱 DNA로 빛어낸 혁신… 韓 시장 재도약”

창립 110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국, 신차 투입에 체질 개선 속도 AS 강화·인증 중고차 서비스 도입 슈퍼카 ‘GT2 스트라달레’ 韓 공개 640마력에 최고속도 시속 324km “일반 도로용으로 전환된 레이싱카”

“110년 역사의 마세라티는 경주용 자동차 레이싱 기술력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다카유키 기무라 마세라티 코리아 총괄)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마세라티가 창립 110주년을 맞아 12일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국내 출시를 앞둔 ‘GT2 스트라달레’를 공개했다.

다카유키 기무라 총괄은 “마세라티의 기원은 경주차에서 시작되었고, 레이싱에서의 유구한 역사와 성공적인 여정은 오늘날에도 고유의 DNA에 깊게 박혀 있다”며 “GT2 스트라달레는 마세라티의 정통성과 현대의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델로 혁신작을 통해 한국 고객에게 마세라티만의 특별한 가치를 전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1914년 이탈리아 볼로냐의 작은 공방에서 경주차를 만들던 마세라티는 올해로 창립 110주년을 맞았다.

이날 다카유키 기무라 총괄은 마세라티가 성장해온 지난 110년간의 여정을 소개했다. 30여 년 전 일본 지역 마세라



다카유키 기무라 마세라티 코리아 총괄이 12일 서울 성북구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저에서 열린 마세라티(Maserati) 창립 110주년 기념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티 오토 커뮤니티인 마세라티 클럽 오브 재팬을 설립한 신이치 에코 회장은 마세라티의 오랜 오토이자 고객 커뮤니티의 대표로서 브랜드가 지닌 헤리티지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브랜드 역사를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행사장에는 브랜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핵심 모델이 전시됐다. 다카유키 기무라 마세라티 코리아 총괄이 실제로 소유한 ‘기블리 2세대’, 마세라티 브랜드 창립 90주년을 기념해 단 180대 한정판으로 선보인 ‘스파이더 90주년’ 등 마세라티를 대표하는 클래식카와 현행 핵심 차종인 ‘뉴 그란카브리오’를 전시했다.

또 마세라티의 출발점인 레이싱 DN



국내 출시를 앞둔 ‘GT2 스트라달레(GT2 Stradale)’

/손진영기자 son@

A에서 비롯된 브랜드의 최신 모델 ‘GT2 스트라달레’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마세라티는 GT2 스트라달레를 설계하는 데 있어 ‘GT2’의 강력한 성능과 ‘MC20’이 성공적으로 로드카에 접목한 스포티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GT2의 레이싱 DNA를 계승한 만큼 주행 성능 또한 레이싱카를 닮았다. GT2 스트라달레는 마세라티가 직접 설계 및 제작한 V6 네튜노 엔진을 장착했다. 현행 모델 중 가장 강력한 네튜노 엔진을 갖춰 최고 출력 640ps 및 최대 토크 720Nm의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2.8초 만에 도달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324km에 달한다.

한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마세라티는 국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다카유키 기무라 총괄은 “우리는 고객 만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AS센터와 같은 서비스와 부품 가용성 등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모든 딜러에게 인증 중고차서비스를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잔존 가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럭셔리 수입차들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마세라티는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마세라티는 국내 진

출과 함께 화려한 디자인과 폭발적인 주행성능을 앞세워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드림카’로 주목받으며 2015년 처음 연간 1000만대를 돌파, 2018년 연간 1660대를 판매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판매량이 감소로 1000대를 밑돌았으며 올해는 11월까지 230대에 머물러 있다.

다카유키 기무라 총괄은 “한국 마세라티 오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마세라티와 함께 하는 매 순간 110년이라는 세월이 증명하는 최고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세라티 GT2 스트라달레 국내 출시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T클라우드

‘AI반도체 팜 구축’

2차년도 사업 순항

KT클라우드는 12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AI 반도체 팜 구축 및 실증’ 2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I반도체 팜 구축·실증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산 AI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저비용·고효율 AI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시작됐다. KT클라우드는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라벨리온, 퓨리오사AI, 사피온 등 AI반도체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1차년도에는 1.1페타플롭스(PF, 1초당 1000조번 연산)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NPU(Neural Processing Unit) 운영관리 플랫폼 개발에 성공하며 AI반도체 활용 기반 환경을 조성했다.

올해 2차년도에는 총 19.95PF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3.35PF 연산용량의 인프라가 추가로 구축됐으며, 자연어 처리, 교육, 관제 등 다양한 분야의 AI 응용 서비스 실증과 고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도시교통관제 분야에서는 실증 기업인 라온로드와 협력해 AI 서비스의 성능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LG “IoT·AI 신뢰도 높인다” 사이버보안 검증 역량 입증

IoT 사이버보안 공인시험 자격 획득 실시간 외부 위협·침입 탐지해 차단

LG전자가 고객 정보의 보호와 유출 방지를 위한 사이버보안 경쟁력을 강화한다.

LG전자는 최근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사물인터넷(IoT) 분야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공인시험 수행 자격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LG전자 SW공인시험소에서 발행한 IoT 기기 사이버보안 표준 인증 시험 성적서가 공신력을 갖는다는 의미로, LG전자는 국제인정기구 상호인정협정(ILAC-MRA)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 100여 개 국가의 공인시험 및 성적서 발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LG전자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IoT 보편화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제품(Connected Device)의 사이버보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제품 개발 기획 단계부터 출시 후 사 용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사이버보안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고객의 데이터를 엄격히 보호한다.

특히 AI 기능을 담은 제품을 중심으



LG전자 CTO부문 박인성 SW센터장이 IoT 분야 사이버보안 공인시험 자격 인정서를 들고 있는 모습. /LG전자

로 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인 ‘LG쉴드(LG Shield)’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하고, 실시간으로 외부 위협 및 침입을 탐지해 차단하는 역할도 맡는다.

앞서 SW공인시험소는 KOLAS로부터 SW(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공인 시험기관 자격을 국내 제조업체 중 처음으로 획득했다. 이후 가전 SW기능안전과 자동차 SW기능안전 분야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제품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바 있다.

박인성 LG전자 SW센터장은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력을 높이고 SW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과기부, 통신 트래픽·장애 대응 점검

유상임 장관, KT 관제센터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유상임 장관이 경기과천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해 최근 통신 트래픽 급증과 통신장애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는 2011년 12월에 설립된 통합 네트워크 관제 시설로, 전국 KT네트워크 인프라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유 장관은 “국민들이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는 오는

14일 대규모 인원 밀집 상황에 대비해 통신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통신 용량을 증설하는 등 통신장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대규모 집회로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통신 이동기지국을 추가로 배치하고 통신 용량을 증설하는 등 통신장애 대응에 나섰다. 광화문·시청, 여의도, 용산 등지에 이동기지국과 간이기지국은 전주 대비 각각 15대, 34대 증가한 36대, 39대가 마련된다. 상황실 및 현장대응 인력도 88명에서 124명으로 늘렸다.

/이혜민 기자

네이버, 신규 블로그 1년 새 214만개

2024 블로그 리포트 발표

네이버 블로그 사용자들의 활약을 한 눈에! 2024 네이버 블로그 리포트 공개 네이버는 1년동안 블로그 트렌드를 정리한 ‘2024 네이버 블로그 리포트’를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네이버는 2020년부터 매년 연말에 블로그 서비스 트렌드와 데이터를 담은 블로그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리포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 네이버 블로그에는 214만개(누적 3500만개)의 새로운 블로그가 생성됐고, 블로그 총사용 시간은 7억 시간을 기록했다. 또 하루 동안 작성된 게시글은 최대 120만개, 방문자는 최대 1800만명, 새로 맺어진 이웃 수는 64만명, 페이지뷰는 2억6천만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기록하는 ‘포토덱스 챌린지’가 MZ세대 이용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네이버 측은 설명했다.

/이혜민 기자 hyem@

기업하기 어려움을 때 중소기업 ombudsman

규제·애로신고 osmb.go.kr

개인투자자, 상승랠리 美 시장으로... 국내 시장은 '관망세'

신용공여잔액, 계엄사태 여파로 15.3조로 내려앉아... 투자심리 위축 투자자에탁금, 연초비 11.04% 줄어 테슬라 주가, 올해에만 약 70.94%↑ 삼성전자, 28.78%↓... 목표주기도 하향

꼬리를 물고 있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국내 증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12.3 계엄사태 직후에는 투자자에탁금과 더불어 '빚투(빚내서 투자)'도 급감하는 모습이다. 반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신용공여잔액은 15조3101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27일 15조8785억원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이다. 연초 17조 원대로 시작해 상반기 20조 원대를 기록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미국 주식시장으로 떠나는 개인투자자 이미지.

하기도 했지만 하반기 들어 지속 하락하는 흐름이다. 이달 들어서는 계엄사태의 여파로 투심이 위축되면서 16조 원대로 무너졌다.

하반기 들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특히 두드러졌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공포 매도)'이 증

시를 끌어내리고 있다. 계엄사태 직후였던 4일부터 11일까지 6거래일 동안 개인들은 약 2조3193억원을 순매도했다.

투자자에탁금도 지난 11일 기준 52조 9228억원으로 연초 59조4949억원에서 약 11.04% 감소했다. 주목되는 점은 계엄령 선포 직후의 흐름이다. 3일 투자자예탁금은 49조8987억원으로 연중 최저

수준을 보였지만, 다음날인 4일 51조 4552억원대로 다시 올라왔다. 투자자에탁금은 투자대기성 자금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난 11일 기준 해외주식 보관금액은 1577억달러로 연초 1012억달러와 비교해 약 55.83%(약 565억달러) 증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 갇혀 투자자들 입장에서 리스크 부담이 크고, 수익률 저하 우려가 크다"며 "하지만 미국의 경우, 주요 증시들이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성장성이 담보되는 시장으로 인식된다. 개인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보유 종목 1위는 테슬라다.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만 약 70.94%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동학개미들의 최선호종목이었던 삼성전자는 올해 약 28.78% 하락했다. 증권가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10만전자'를 예상했지만, 최근 들어서 목표가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 삼성전자는 5만5900원으로 '5만전자'에 머물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과 국내 주식시장이 엇갈린 성적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수익률도 상반되는 모습이다.

이날 BNK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매출액은 74조3000억원, 영업이익은 8조원으로 추정하며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시장예상치를 각각 5%, -17%씩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전 분기에 이어 상여금 총당이 추가 반영되고, 연말 비용 증가 때문에 수익성이 예상보다 더 악화했을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하반기 실적 악화의 주요인이었던, 글로벌 스마트폰 주문자 생산방식(OEM)들의 재고조정은 연말부터 내년 1분기 사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밸류업 지속 가능성... 금융주 반등세 '충분' 키움운용, 오는 17일 美양자컴퓨팅 ETF 상장

KRX은행지수, 계엄 이후 약 9%↓ 정치 불확실성에 투자심리 위축 정책적·수익성 면에서 영향 제한적

연말 배당 수혜주로 손꼽히는 금융주가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여파로 급락하자, 반등 시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밸류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지만, 전문가들은 밸류업 정책의 후퇴 가능성이 작아 금융주의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으로 구성된 KRX은행지수는 계엄 사태 이후 약 9%가량 하락했다. 이는 코스피 지수(-0.72%)와 코스닥 지수(-1.07%)의 하락 폭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 KB금융이 14%가량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신한금융지주는 10%, 하나금융지주는 9%, 우리금융지주는 8%의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초 은행주는 밸류업 정책 발표

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상승세를 보였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국내 기업들이 추가 부양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주주친화적인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은행들의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을 키우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주를 대거 팔아치우면서 급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4일부터 11일까지 KB금융 4350억원, 신한금융지주 1663억원, 하나금융지주 88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금리와 환율 등 매크로 지표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시스템산업인 은행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초 밸류업 정책 발표 이후 은행의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

가 커진 데다 원·달러 환율 급등이 보통주 자본(CET1) 비율과 은행 손익 등 펀더멘털(기초체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환율 안정과 더불어 밸류업 정책이 유지되고 주주환원 확대 기조가 지속된다면 금융주의 반등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해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권 안정과 수습까지 3~6개월은 걸릴 전망이다. 이 기간 분기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이번 사태는 은행주에 정책적으로나 수익성 면에서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적으로나 이익적으로 영향이 크게 없다면 외인의 매도세가 진정될 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율과 금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고려한다면 금리는 2% 중후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원화 약세는 추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아이온큐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겨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양자컴퓨팅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KOSEF 미국양자컴퓨팅'을 오는 17일 상장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ETF 시장에 양자컴퓨팅 산업을 겨냥한 ETF가 출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KOSEF 미국양자컴퓨팅 ETF는 북미에 분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중 양자컴퓨팅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20개에 투자한다. 지난달 말 기초지수 기준 아이온큐(24.7%)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다. 마벨테크놀로지(8.2%), 허니웰 인터내셔널(7.0%), 엔비디아(6.7%), IBM(6.7%) 등의 비중도 높다. 아마존, 팔

로알토, 알파벳, 오라클, 인텔 등도 편입한다. 기초지수는 글로벌 지수사업자 솔랙티브가 산출하는 'Solactive U.S. Quantum Computing Index'다.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초고속 연산을 할 수 있어 '꿈의 컴퓨터' 또는 '궁극의 컴퓨터'로 불린다. 구글은 2019년 자사 양자컴퓨터 시카모어가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걸리는 연산을 200초 만에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자컴퓨팅 산업은 이제 성장 초입에 들어선 만큼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막대하다고 평가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양자정보기술백서'에 따르면 글로벌 양자컴퓨팅 시장은 2023년 18조 8352억원에서 연평균 30.9%씩 성장해 2030년 123조826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원관희 기자

미래에셋운용, 美 투자 ETF 2종 순자산 10兆 돌파

美S&P500, 나스닥100 ETF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TIGER 미국S&P500 ETF',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2종 순자산 총합이 10조원을 돌파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S&P500 ETF' 순자산은 6조 2115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된 주식형 ETF 중 1위 규모이자, 아시아 ETF 시장에 상장된 미국 S&P500 지수 추종 ETF 중 최대 규모다.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



/미래에셋자산운용

산은 4조 2980억원으로, 현재 아시아에서 S&P500, 나스닥100 지수 추종 ETF의 총 순자산 규모가 총 10조원을 넘어

선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일하다.

아울러 국내 주식형 ETF 시장에서 미국 투자 상품이 국내 투자 상품을 제치고 순자산 1위에 오른 것은 'TIGER 미국S&P500 ETF'가 처음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지난 11일 기준 'TIGER 미국S&P500 ETF'는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 약 1조7200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상장 전체 ETF 중 개인 순매수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11월에는 주식형 ETF 순자산 1위에 등극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운용 프로파일북, 美 LACP서 '금상'

(커뮤니케이션연맹)

9년 연속 수상 기록 달성

삼성자산운용은 '2024년 삼성자산운용 프로파일북'이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관하는 '2024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2024 LACP Spotlight Awards)'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자산운용의 프로파일북은 회사의 투자 철학, 전략, 성과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안내하는 자료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금상'을 4년 연속 수상했고, 2021년에는 최고의 영예인 '플래티넘 어워드'를 수상했다. 이후 2022년부터 올해까지 다시 3년 연속 금상을 수상하며 9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LACP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설립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관으로, LACP가 매년 발표하는 스포트라이트 어워드는 포춘(Fortune) 500대 기업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기업, 기관들이 발간한 회사 소개서, 연차 보고서 등 각종 커뮤니케이션 결과물을 평가하는 시상이다.

올해는 전 세계 12개국 1500여개의 보고서가 출품돼 다양한 부문에서 경쟁했다. 세계 각국의 기업에서 발행된 보고서는 첫인상, 전달력, 디자인, 창의성, 명확성, 연관성 등 6개 항목을 심사한다. 삼성자산운용은 6개 부문 중 4개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총 100점 만점에 98점을 기록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삼성자산운용의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혁신성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K-신약 미국서 승승장구... '토종 블록버스터' 탄생 기대감

GC녹십자 혈액제제 '알리글로' ABO홀딩스 인수... 원료 안정적 확보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美 의약품시장 분기매출 1000억

셀트리온 '집펜트라' 연매출 1조 내년 시장 점유율 10%이상 목표



(왼쪽부터)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미국 판매명: 엑스코프리), GC녹십자의 면역글로불린 혈액제제 '알리글로', 셀트리온의 '집펜트라(렘시마SC의 미국 제품명)'. /각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의 약품 시장에서 '국산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탄생시키기 위한 행보를 활발히 하고 있다.

12일 국내 제약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미국에서 혈액제제 '알리글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성장동력을 추가로 마련했다.

GC녹십자는 지난 11일 미국내 혈액원 운영 업체인 ABO 홀딩스를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GC녹십자는 1380억원으로 ABO 홀딩스 지분 100%를 취득한다. 취득 예정일은 오는 2025년 1월 31일이다.

GC녹십자에 따르면 ABO 홀딩스는 미국 뉴저지, 유타, 캘리포니아 등 3개 지역에서 6곳의 혈액원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에 혈액원 2곳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어 오는 2026년부터는 총 8

곳의 혈액원이 가동될 예정이다.

GC녹십자는 이번 혈액원 인수를 통해 혈액제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GC녹십자는 앞서 올해 7월 자사가 개발한 면역글로불린 혈액제제 '알리글로'의 초도 물량 선적을 완료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국산 혈액제제의 미국 의약품 시장 진입은 알리글로가 처음이다.

알리글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증으로도 불리는 일차 면역결핍증에 사용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다. GC녹십자가 독자 기술로 혈전색전증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혈액응고인자

등 불순물을 제거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 알리글로 특징이다.

GC녹십자는 알리글로 미국 시장 출시에 힘입어 매출을 확대했다. GC녹십자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액 4649억원, 영업이익 396억원, 당기순이익 358억원 등을 달성했다.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매출은 5.8% 늘었고, 영업이익은 20.7%, 당기순이익은 95.6% 급증했다.

이러한 호실적에서 GC녹십자의 혈액제제류 사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혈액제제류의 올해 3분기 매출은 1366억원으로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36.7% 증가했다. 특히 올해 2분기와 비교하면, 906억원에서 50.7% 확대된 규모다.

GC녹십자는 알리글로 판매 개시에 따라 실적이 개선됐다는 분석을 내놨고, 오는 2025년부터 알리글로는 매년 5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GC녹십자는 오는 2025년 알리글로가 15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도 올해 2분기부터 미국의약품 시장에서 분기매출 1000억원대를 지속하며 K신약 경쟁력을 높인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세노바메이트(미국 판매명: 엑스코프리)는 올해 1분기 909억원, 2분기 1052억원, 3분기 1133억원 등으로 분기마다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 SK바이오팜은 올해 초 세노바메이트 연 매출 목표를 3900억~4160억원으로 세운 바 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매출뿐 아니라 높은 신규 환자 처방 수를 성장기반으로 해 기업 입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세노바메이트의 출시 53개월 차인 올해 9월 기준, 월간 총 처방 수는 약 3만1000건으로 이는 경쟁 신약의 출시 53개월 차 처방 수의 약 2.2배 수준이라는 것이 SK바이오

팜 측의 설명이다.

셀트리온은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 '집펜트라' 연 매출 1조원 달성으로 K블록버스터 강자 자리를 점조준하고 있다.

집펜트라가 주력하는 미국 염증성 장 질환 시장 규모는 12조8000억원 수준이다. 셀트리온은 오는 2025년까지 해당 시장 점유율을 최소 1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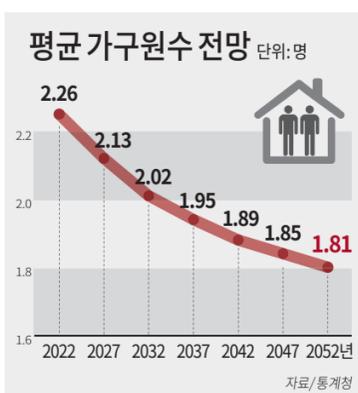
집펜트라라는 치료 효능 및 안전성이 입증된 고품질의 바이오 의약품을 집에서 간편하게 자가 투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질병 관리에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만큼, 셀트리온은 집펜트라 제품력과 수익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 관점에서 고려해보면 고수익, 고마진 등의 요소도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만 K신약이라는 원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마다 자사 주력 제품을 중심으로 미중국의 의료 수요를 파악하고 적응증을 확대하는 등의 연구개발 측면에서의 노력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52년 가구주 절반 '65세 이상 고령자'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고령자 가구 1178.8만 가구 전망 1인가구 비중은 41%로 7.2%p ↑



오는 2052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자 가구주가 절반을 넘을 전망이다. 또 전체 가구 열에 넷은 1인가구일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에 따르면 28년 뒤 가구주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가구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다. 이 같은 고령자 가구는 2022년 522만5000가구에서 2052년 1178만8000가구로 100%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자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4.1%에서 2052년 50.6%까지 불어난다. 2022년에 65세 이상이 가구주인 비중은 전남(34.4%), 경북(31.5%), 전북(30.9%) 순으로 컸다.

또 세종(13.3%), 경기(19.6%), 대전(20.5%) 순으로 낮았다.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2022년 기준 34.1%(739만 가구)에서 2052년 41.3%(962만 가구)로 7.2%포인트(p) 증가한다.

지난 2022년 시도별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지역은 대전

(38.2%)과 서울(37.7%) 등 14개 시도였다. 30년 후에는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해 2052년에는 17개 시도 모두에서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된다.

2022년 1인가구 비중은 대전(38.2%), 서울(37.7%), 강원(36.9%) 등에서 높았다. 2025년에는 강원(45.7%), 충북(44.5%), 대전(44.1%) 순으로 바뀔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2052년에는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아지고 강원, 충북 등 12개 시도에서는 비중이 40%를 넘을 전망이다.

이에 더해 2인가구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2년 2인가구는 619만 9000 가구(28.6%)에서 2052년에 826만1000 가구(35.5%)로 1.3배가 된다. 28년 후 모든 시도에서 2인가구 비중이 3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벤처기업 10곳 중 7곳 올해 투자유치 실패

벤처기업협회, 455곳 대상 설문 절반은 "내년 자금사정 '악화' 전망" 기업 5곳 중 1곳만 '호전될 것' 응답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투자유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절반은 현재 직면한 주요 금융 현안으로 '운영자금 부족'과 '높은 금융 비용'을 꼽았다.

응답자의 50%에 가까운 벤처기업은 내년 자금사정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은 5곳 중 1곳에 그쳤다.

절반 가량이 '악화'를 전망한 이유는 인건비 상승, 매출 감소 등이 가장 컸다.

이같은 내용은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45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2일 내놓은 '2024년 벤처기업 투·융자 현황 등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직면한 가장 중요한 금융 현안'(복수응답)으로 ▲운영자금 부족(29.6%) ▲높은 금융 비용(20.6%) ▲초기 자금 조달 어려움(19.2%) ▲자본 접근성 제한(10%) 등 주로 '돈'을 꼽았다.

올해 대비 내년도 예상하는 자금사정을 묻는 질문에는 '악화'(다소 악화+매우 악화)가 47.7%로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호전'(다소 호전+매우 호전)될 것이라는 답변은 20.9%에 그쳤다. 이외에 31.4%는 '동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선 '인건비 상승'(23.3%)과 '판매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22.6%)가 가장 컸다.

이외에 ▲원자재 가격 상승(17.4%)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16.6%) ▲연구개발 또는 설비투자 비용 증가(13.7%) 등이 뒤를 이었다.

/김승호 기자 bada@

소진공, 안전·환경 경영 ISO인증 유지

적극 ESG경영으로 재인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적극적인 ESG경영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및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을 유지했다.

12일 소진공에 따르면 ISO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최초 인증을 취득한 후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3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소진공은 2020년 ISO45001 최초 획득 후 2023년 갱신을 거쳐 올해 1차 사후 심사를, ISO14001은 2022년 최초 인증 후 올해 2차 사후 심사를 각각 통과했다.

특히, ISO45001의 경우 안전보건사고 예방을 위해 실습형 안전체험교육, 약성민원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노사협의회에서 나온 안전 관련 안건을 적극 반영한 점이 인정받았다.

/김승호 기자

최진식 중견협회장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사진)이 차기 회장에 다시 추대됐다.

중견련은 지난 1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제12대 회장(2025년 2~2028년 2월) 후보로 최진식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제12대 회장 선임은 내년 2월 이사회와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김승호 기자

기보, 제약·바이오기업 혁신성장 추가지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이 제약·바이오 기업 혁신 성장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보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신약조합 본사에서 '혁신 제약·바이오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제약·바이오 분야의 고부가가치기업을 발굴하고,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단계에 필요한 기술금융 종합 지원을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신약조합은 우수 제약·바이오 기업을 발굴하여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기술가치평가 실시 ▲보증연계를 통한 금융지원 ▲기술이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등 '원-스톱 패키지(One-stop Package)'를 후속 지원해 고부가가치기업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단계를 촉진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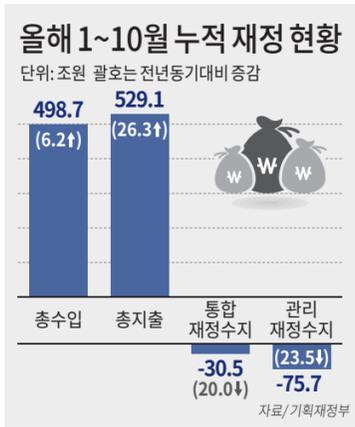
75조 재정 적자 ‘흔들리는 나라살림’ 국세감소·지출확대, 연말 91조 전망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1~10월 누계 기준 역대 세번째 규모 법인세 18조 감소, 지출 529조 원인 국가채무 6.8조 증가한 1155.5조 국세 기반 확대·긴축재정 등 관건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5조 원에 달했다. 1~10월 누계 기준으로 역대 3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총수입은 498조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조2000억 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81.5%로 집계됐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으로 구성된다.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조7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6조1000억 원 증가했으나,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는 17조9000억 원 줄어든 것이 주 원인이다. 반면, 세외수입은 24조1000억 원, 기금수입은 180조9000억 원



로 각각 1조5000억 원, 16조4000억 원 증가했다.

10월까지 총지출은 529조1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80.6%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1~10월보다 23조5000억 원 증가하

며 75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2020년(90조6000억 원), 2022년(86조3000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달보다 6조8000억 원 증가한 115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연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인 1163조 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8000억 원이다. 올해 1~11월까지 국고채 누적 발행량은 15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에는 지출과 비교해 수입이 커 지난 9월 말 95조5000억 원 대비 개선됐다”면서도 “부가세가 1, 4, 7, 10월 나와 부가세를 건지 못하는 11월, 12월이 되면 적자폭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벼 재배면적, 서울시 1.3배만큼 줄인다

농식품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타작물 전환·고품질 쌀 생산’ 유도

정부는 쌀의 과잉생산 및 소비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벼 재배면적의 대폭 감축과 타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면적의 1.3배인 8만ha(800㎢) 크기의 재배면적을 줄여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쌀 산업 개편에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목표를 내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및 고품질 생산 체계로의 전환 ▲신규수요 창출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기반 확충 등이 담겼다. 대책은 내년 시작해 2029년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에 대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 과잉 상태라며,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는 소득 증가에 따라 고품질 위주로 다양해지고 1인당 쌀 소비량은 2018년 61.0kg에서 지난해 56.4kg로 감소 추세라고 했

다. 이에 반해 쌀 농가에서 무게 중심의 생산 체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에 정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 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ha) 감축을 목표로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면적 8만ha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벼 재배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선 전락작물직불제를 확대한다. 전락작물직불제 예산은 올해 1865억 원에서 2440억 원을 늘어난다. 또 하계 조사료와 밀의 경우 지급단가를 인상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효과적인 재배면적 감축 이행점검을 위해 위성사진을 활용한 재배면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 등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해 현장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소비구조를 전환하는 방안도 본격화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푸드 열풍... 인니 MZ세대 ‘밥상 점령’

시장 확보위한 할랄 인증 과정으로 남아 롯데마트, 김밥·떡볶이 가성비 승부 두끼 떡볶이, 현지화 전략으로 대중화

“한국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고 K-푸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2012년에 처음으로 라면을 먹었고, 그 후로 떡볶이, 김밥 등 한국 음식을 즐겨 먹고 있다.”

지난달 28일 방문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의 롯데마트 간다리아 씨티점은 한국 음식을 찾는 소비자들로 북적였다. 지하 1층에 위치한 마트 입구에는 라면, 김밥, 떡볶이, 튀김, 닭강정 등 다양한 한국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코트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약 2070여 평 규모의 매장 내에서 가장 눈길을 끈 곳은 한국 라면 코너였다. 수십여 종의 라면이 진열된 모습은 K-푸드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이슬람 전통 복장인 히잡을 착용한 이마라(25·프리랜서)씨는 “한류 열풍 덕분에 MZ세대(80~90년대생) 사이에서 K-푸드는 매우 인기가 높다”며 “과거에는 한국 음식 중 할랄(이슬람법에서 허용한 음식)을 찾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할랄 음식이 많아져서 찾기 쉬워졌다. 기회가 된다면 간장계장을 먹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어를 공부 중인 스피넬라(32·프리랜서)씨는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산 딸기나 복숭아를 구하기 어려워 더 관심이 간다”며 “한국 음식은 가격이 다소 비싸 친구들과 돈을 모아 함께 나눠 먹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친구들 역시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 김밥은 직접 만들어본 적도 있다”며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냉동상태의 봉어빵만 수입되고 있어,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의 롯데마트 간다리아 씨티점 모습. /김대환 기자

생긴다면 길거리에서 갓 구운 봉어빵을 꼭 먹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후르(21·바리스타)씨는 “한국인 친구와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한국 과자를 보여주곤 한다. 그럴 때마다 마트에 가서 구매한다”고 말했다. 무슬림인 그는 한식당에 갈 때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메뉴를 주문하며, 아메리카노처럼 할랄 표기가 없는 음식은 성분을 직접 확인해 돼지고기나 술이 들어 있는지 살펴본다고 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도네시아로의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은 2억1056만500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2억318만7000달러) 대비 3.63% 증가한 737만8000달러의 상승폭을 기록한 수치다. 품목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커피조제품이 4945만5000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음료 2120만5000달러, 라면 999만1000달러, 과자류 543만2000달러, 딸기 298만4000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승훈 농수산물유통공사 자카르타 지사장은 “인도네시아에서 MZ세대

가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한다”며 “이들은 아직 소득 수준이 높지 않지만, 떡볶이, 김밥, 닭강정 등 한국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소비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롯데마트 푸드코트에서는 한국 돈으로 약 4500원을 넘지 않는 가격에 김밥, 떡볶이, 닭강정 등 길거리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며 “두끼 떡볶이와 같은 프랜차이즈에서도 김밥, 떡볶이, 어묵 등을 판매하고 있어 인지도와 대중성이 높아 이런 메뉴들은 잘 팔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승훈 지사장은 인도네시아의 까다로운 할랄 인증 절차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시장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할랄 인증이라는 규제 장벽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중소 영세기업들은 2년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한국할랄인증원 등 국내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KIAT, 규범준수 경영 도입 선포

‘컴플라이언스 경영 도입 선포식’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2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ISO 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기념해 ‘컴플라이언스 경영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컴플라이언스 경영이란, 준법 경영을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윤리를 실천하는 ‘규범준수 경영’을 의미한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관련 국제표준으로, 조직의 경영 정책 및 위기 대응 체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구축돼 운영하고 있는지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하는 인증제도다.

KIAT는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의 전문성과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근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은 KIAT가 전담·관리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신입직원들이 규범준수 경영방침을 공동 낭독하고, 규범준수와 윤리경영을 다짐하는 희망 메시지를 담아 희망 나무에 매다는 행사를 진행했다.

KIAT는 선포식을 계기로 규범준수 경영을 다짐하는 전직원 동참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동서발전,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준공

연간 1.3억kWh 전력 생산

한국동서발전이 대호호의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가동한다. 연간 1억3000만kWh(키로와트시) 전력을 생산, 3만8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

동서발전은 지난 11일 당진발전본부 에너지캠퍼스에서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정책관, 한현교 서산시 경제산업국장, 유휴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7.8km에 이르는 송전선로를 모두 지중화해 지역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했으며, 서산지역 경

제활성화를 위해 전체 98MW(메가와트) 중 4MW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20년간 지역주민들에게 공유한다. 발전소 제어동 건물 옥상에 전량대를 설치해 방문을 위한 지역주민 누구나 대호호 수면 위의 광활한 태양광 설비를 관람할 수 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추진한 공공기관 협업 모델이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익공유형 사업 모델로 신재생 사업확대의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바다가꾸기 사업 지원, 지역농산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지 TV + 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서울시, 강북권 전성시대 프로젝트 순항... '직·주·락' 집중

(직장·주거·여가)

동북권 8개구, 서북권 3개구 추진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적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선
K-팝 중심 복합문화시설 착공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3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강북권 대개조사업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주거 환경 개선 활성화, 대규모 문화시설 착공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서울 강북권을 '일자리 중심의 신(新)경제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동북권 8개구(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와 서북권 3개구(마포·서대문·은평)를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미래형 일자리', '쾌적한 주거 환경', '감성 문

화공간' 등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초점을 뒀다.

우선 시는 강북권역의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적용했다. 기존 사전협상 제도를 손질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며, 상한 용적률 인센

티브가 활성화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옛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4만8000㎡ 규모의 공공 유향 부지로, 오는 2033년 창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외에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 정책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도 개선,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 인정 등 강북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강북구 미아

동 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며 최초로 고도지구 규제 완화 사례를 만들었다"면서 "또 올 11월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최초로 적용받았다"고 말했다.

강북권 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K-팝 중심 복합문화시설인 서울아레나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7월 착공식을 개최했고, 올해 11월 서북권 최초의 시립도서관인 김병주도서관의 공사를 시작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앞으로도 강북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강북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강남·북 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BK21 혁신인재양성사업, 기관 71곳 재선정

교육부-연구재단, 중간평가 예비결과 201개 중 하위 33.3%인 67곳 탈락
4개 산업·기술 분야, 새로 추가 진행

4단계 두뇌한국(BK)21 혁신인재양성 사업을 수행하는 201개 교육연구단 중간 평가 결과, 하위 33.3%에 해당하는 67곳이 탈락하고 71곳이 재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2일 '4단계 BK21 혁신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 예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7년간 진행되는 4단계 BK21 혁신인재양성사업은 전 분야에 걸친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연구단(팀) 운영 및 대학원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중간평가는 2020년 선정돼 사업 수행 중인 201개 교육연구단을 대상으로 우수 성과 창출 독려 및 경쟁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우수한 신규 교육연구단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됐다.

1단계 성과평가는 신산업 17개, 산

업·사회문제해결 3개 등 20개 분야에서 전국·지역 단위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전체 201개 중 하위 33.3%인 67개 교육연구단이 탈락했다. 통과한 134개 팀 중 상위 20.9%인 42개 교육연구단에는 연간 혁신인재양성사업사업비의 16.6% 수준인 총 57억여원의 성과금이 지급됐다.

2단계 재선정평가는 최근 사회적으로 인력양성 필요성이 급증한 '사이버 보안·양자·우주·이차전지'의 4개 산업·기술 분야 선정을 새로 추가해 진행됐다. 총 215개 교육연구단이 지원한 결과 총 71개 교육연구단이 예비 선정됐다.

예비 선정된 71개 교육연구단 중 ▲ 건국대 기초-응용 학문융합 한계돌파형 첨단소재 인재양성 연구단 ▲ 경희대 글로벌 첨단 반도체 혁신교육연구단 ▲ 서울대 지방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지역 레질리언스 융합인재 교육연구단 ▲ 인하대 저궤도 우주경제 기술 선도 인재양성 사업단 등 41곳이 신규 선정됐다. 나머지 30개 연구단은 앞서 진행된 성과 평가에서 탈락했다가 재정비를 거

쳐 재선정됐다.

성과평가를 통과한 134개 교육연구단과 재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예정인 71개 교육연구단은 내년 3월부터 2027년 8월까지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대학은 이를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비, 연구활동 지원비, 국제화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재선정평가의 최종 결과는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이의신청 및 증빙자료 점검을 거쳐 2025년 2월 확정·발표된다. 다만, 하위 내용이 있을 경우 탈락할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BK21 사업은 우리나라 대표 대학원 지원사업으로, 젊은 연구자의 성장과 연구의 양적·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라며 "엄정한 평가를 통과해 새롭게 선정된 교육연구단이 국가 연구경쟁력을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ASML 자리 잡는다

ASML 사무소 설치 등 협약

용인특례시는 세계 최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의 한국법인 ASML코리아가 용인에 사무소를 설치해 들어온다고 밝혔다.

ASML코리아는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서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최한중 ASML코리아 대표와 ASML 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과 인력양성 및 용인지역 인력 고용 등을 내용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용인과 지역 내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장비의 기술지원과 유지·보수 기반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용인은 ASML코리아가



이상일 특례시장(왼쪽)과 최한중 ASML KOREA 대표이사(오른쪽)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을 들어보고 있다. /용인시

반도체 팹(Fab) 인근에서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ASML코리아는 관내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한 사무실에 용인지역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협조하기로 했다. /용인(경기)유진 기자 yujin@

서울역 일대, 글로벌 미래 플랫폼으로 재탄생

서울시, 서울역 공간 대개조 구상 발표

서울역 일대가 지식·문화 교류 허브이자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글로벌 미래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12일 중구 청파로 432에서 열린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착공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역 공간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은 저이용 철도 부지(면적 약 3만㎡)에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전사·국제회의장을 갖춘 국제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부지엔 최고 39층 규모로 도심권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

션·전시회) 산업을 선도할 시설이 건립된다. 공공기여로 확보한 3384억원은 서울역 일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입된다.

이날 시가 내놓은 서울역 일대 개발 비전은 '글로벌 미래 플랫폼'이다. 먼저 시는 복잡하고 어려운 환승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로 확보되는 대규모 지하 공간을 활용해 복합환승센터를 설치, 효율적이고 편리한 환승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기존 철로 구간에 도심과 한강을 잇는 선형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선형공원을 비즈니스 공간과 랜드마크타워, 마이스, 호텔, 상업, 주거, 지하 교통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국가유산(사적)인 문화역284(구 서울역사)의 상징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울역 광장과 남산 등 인근 지역을 잇고, 역 앞 광장은 탁 트인 녹색 공간으로 가꿔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역 광장을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철도 지하화가 이뤄지는 2033년 이후부터 서울역 상부 개발을 추진, 2046년 무렵까지 미래 플랫폼 구상 실현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국가 중앙역이자 국제 관문으로서 서울역의 위상을 높이고 공간을 재편하는 도시 대개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거와 미래, 세계와 서울을 연결하는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날 '서울역 일대'가 다시 힘차게 뛰는 날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남도, 내년 국비 9조6082억 확정

전년비 2003억 늘려... 2.1% ↑

경상남도는 2025년도 국비가 지난해보다 2.1%, 2003억원이 증가한 9조 608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당초 정부예산안 확정 이후 국회상황실을 운영하며 국회단계 국비 추가 증액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쳤으나, 정부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2025년 경남도 국비 확보액은 기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9조 6082억원으로 확정됐다.

경남도 주요 국비사업은 정부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으며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은 없어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다.

주요 사업을 보면, ▲남부내륙철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양산도시철도 ▲진해신항 건설 등 주요 SOC사업과 ▲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 ▲위성계

발혁신센터 조성 등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돼 이번 의결로 확정됐다.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방산진입 액셀러레이팅 지원 등 원전, 방산 분야는 물론 ▲융복합 콘텐츠 산업타운 등 주요 사업들도 확정됐다.

또 ▲경상남도 우주항공 농식품 산업 육성 사업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등 신규 사업 예산 확정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경남도는 최근 정치상황 등에 따라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앞으로 정부 추경이 있을 시 반영하거나 2026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연말 행사·모임 취소 줄이어... 주류업계, 흡술족 마케팅 전략

하이트진로

참이슬 오징어 게임 에디션 등 출시
오비맥주 홀리데이 스페셜 패키지
롯데칠성 새로·크러시 채널 확대

‘12·3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시민들이 연말 모임 대신 집회에 참석하면서 주류업계의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다.

통상 연말에는 단체 모임이나 행사가 많아 유통 시장 주류 판매량이 대폭 늘기 마련인데 올해는 연말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위가 펼쳐졌을 때에도 소비심리 지수가 급감하면서 주류업계도 영향을 받은 바 있다.

당시 102.7이었던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탄핵 정국이 시작된 11월 96까지 떨어졌다. 이어 12월 94.3, 이듬해 1월 93.3, 2월 94.5, 3월 97이었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야 100을 넘겼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평균보다 경기가 낙관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국내 주류업계는 연말 단체 모임 수요 감소를 일정 부분 만회하기 위해 유



11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주류 매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수 소비가 침체와 비상계엄령 여파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유통업계는 연말 특수를 맞은 주류 판매 신장률이 지난해 대비 감소하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흥 시장 대신 가정용 시장 공략에 나서 는 모습이다. 주요 상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현장 관촉행사는 줄이고, 가정에서 술을 마시는 소비자를 겨냥한 마케팅을 전개한다.

하이트진로는 ‘데라·진로·일품진로 크리스마스 에디션’, 참이슬 오징어 게임 에디션’을 출시했다.

오비맥주의 라거 브랜드 ‘한맥’은 캔

맥주 12개와 업그레이드된 거품 생성기가 포함된 홀리데이 스페셜 패키지를 4000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또 다른 브랜드 스텔라 아르투아의 경우 20일부터 3일 간 성수동 인기 레스토랑 6곳과 협업한 미식 페어링을 즐길 수 있는 ‘스텔라 테이스트 로드(Taste Road)’ 팝업 행사를 개최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와 ‘크러시’

입점채널 확대, ‘청하’ 판매 활성화 등 기존 전략을 유지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회식 문화가 크게 축소된 뒤 술 소비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었다”며 “연말을 맞아 술 판매량이 좀 회복되나 싶었는데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수입 주류 업계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주류 수입량이 감소세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주축인 MZ세대들이 주말 시위에 참여하면서 더욱 매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10월 누적 와인 수입량은 3만3177톤으로, 지난해(3만5598톤) 대비 약 7% 감소했다. 와인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3억2490만달러에서 2억9663만달러로 약 9% 떨어졌다.

같은 기간 위스키 수입량은 올해 2만2236톤으로 전년 대비 약 17% 쪼그라 들었다. 수입금액 또한 2억188만달러로 지난해 대비 약 9% 줄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에 주류 수입량과 매출은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며 “연말 마케팅은 물론이고, 내년 판매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코카콜라, 신제품 ‘올림워터’ 선보여

코카-콜라사가 12일 서울 강남구 갤러리아 명품관에 마련된 ‘올림워터’ 출시 기념 팝업 스토어에서 신제품 ‘올림워터’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bhc, 태국서 인기 방콕 등에 매장 11개 누적 주문량 70만건

치킨 브랜드 bhc가 태국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하며 K-치킨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올해 1월 태국에 첫 진출한 bhc는 최근 랑สิต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퓨처 파크몰에 11호점을 여는 등 1년도 되지 않아 방콕과 주요 위성 도시에 11개 매장을 개점하는 성과를 올렸다.

12월 현재 기준으로 태국 매장 주문량은 70만 건을 넘었으며, 50만명이 넘는 고객이 매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누적 주문 건수는 10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bhc가 태국 내 대표 K-푸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bhc는 대형 쇼핑몰에 매장을 입점시키는 전략을 통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며 현지 고객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방콕 최대 쇼핑 단지 메가방나에 위치한 8호점은 태국 내 매출 1위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센트럴월드에서 입점한 1호점은 평일과 주말 모두 긴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인기 매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원선 기자

“잠실에서 ‘피카츄’ 만나요” 롯데백화점 ‘포켓몬 팝업’

오늘부터 잠실 롯데월드몰서 오픈
오리지널 굿즈, 한정판 상품 등 준비

롯데백화점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포켓몬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13일부터 오는 2025년 1월 6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운영된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포켓몬 팝업스토어’를 통해 ‘포켓몬 오리지널 굿즈’, ‘크리스마스 한정판 상품’ 등 총 1000여 종의 포켓몬 제품을 최대 물량으로 선보인다.

특히 ‘포켓몬 오리지널 굿즈’는 매출시마다 오픈런, 조기 품절 현상이 이어졌던 만큼 올해는 물량을 전년 대비

약 15% 늘려 준비했다는 게 롯데백화점 측 설명이다.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으로 만나볼 수 있는 50종 ‘포켓몬 오리지널 굿즈’로 구성된 뽑기 머신 ‘오리지널 캡슐 토이’도 마련됐다. 이 외에도 약 200여 종의 크리스마스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체험형 콘텐츠와 이벤트도 진행한다. 팝업스토어에서 구매한 상품을 ‘커스텀 MD존’으로 가져가면 추가 장식을 활용해 나만의 포켓몬 상품을 만들 수 있다. 또, 구매 금액에 따라 ‘스탬프 북’, ‘포켓몬 냅지 세트’, ‘포켓몬 팝업스토어 슬로건 티셔츠’ 등을 증정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홈플러스, 리퍼브매장 반품제품 할인판매

식품·생활용품 등 최대 70% 할인

홈플러스가 고객 접근성이 뛰어난 매장에 생활밀착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콘텐츠 도입을 지속한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해 홈플러스 리퍼브 매장 내 미사용 반품 제품과 매장 전시 제품을 할인가에 판매한다. 리퍼브 매장은 반품이나, 전시 상품, 이월 상품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매장을 뜻한다.

특히 식품과 생활용품·가전, 스포츠·캠핑, 패션 등의 제품을 정가가 대비 최대 70%, 평균 30% 할인가에 제공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10월, 제로웨이스트 콘셉트 매장인 ‘베러얼스’ 팝업스토어도 진행했다. 행사 기간 천연 수세미, 천연 세안 비누, 비건 치약 브랜드 제품을 선보였다.

이 외에도 재활용 가방 브랜드 ‘프로젝트 1907’과 협업해 페트병 기부 시 제



홈플러스 ‘베러얼스’ 제로웨이스트 팝업스토어에서 방문 고객이 물건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홈플러스

로 웨이스트 제품을 제공하는 고객 참여형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커피박 환전소’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자원 재활용 의미를 계속해서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커피박 환전소’는 고객에게 커피 찌꺼기로 만든 연필을 제공하는 친환경 행사다. 현재 홈플러스 면목점, 북수원점에서 운영 중이며, 이달 18일부터는 포천송우점까지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CJ올리브영, 준법정책 국제표준 ISO 취득

글로벌 공정경쟁 정책 등 구축

CJ올리브영이 글로벌 대표 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원으로부터 준법 경영 시스템을 인증하는 ‘ISO 37301’을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ISO 37301은 지난 2021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것으로, 기업의 준법 정책과 위험 관리 활동 등이 세계적 수준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해 수여한다.

올리브영은 2019년 8월부터 준법 윤리 정책을 기반으로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임직원 행동 강령을 통해 가치 판단 기준을 세우고, 글로벌

공정 경쟁 정책도 구축했다. 같은 해 구성된 준법경영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통해 연 1회 준법 경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이번 인증 취득을 기점으로 준법 경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리브영은 올해 안에 준법지원인과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해 컴플라이언스 활동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준법 활동 총괄 관리자, 회사의 규범 준수 사항에 대한 점검·수립·강화 등을 담당한다. 특히 올리브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별 윤리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신세계라이브쇼핑 ‘건강 플러스’ 오픈

모바일 앱 내 건강식품 전문관

신세계라이브쇼핑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건강식품 전문관 ‘건강 플러스’를 새롭게 연다고 12일 밝혔다.

신세계라이브쇼핑에 따르면 ‘건강 플러스’에 ▲정관장 ▲대상웰라이프 ▲여에스터 ▲에버플라겐 등 건강식품 브랜드들이 참여해 인기 상품을 선보인다.

애플리케이션 내 ‘건강 플러스’ 화면도 전면 재정비했다. 기존 성분별로 복잡하게 이곳저곳 나뉘어 있던 건강식품들을 위 건강, 장 건강, 성장발육 등 카테고리로 분류해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신세계라이브쇼핑 측 설명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건강식품 콘텐츠 관련 쇼츠 영상도 제공한다. /안재선 기자

끝없는 도전정신으로 이자카야서 고깃집·부동산까지 확장

인터뷰 최용일 엔엠에프 전무

‘이자카야 나무’ 연 매출 500억 프리미엄 숙성 고깃집 ‘나무가든’ 소규모 버전 브랜드 확장도 추진 부동산·경매 전담 팀 운영 중 실버산업·숙박업 등 진출 모색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엔엠에프 최용일 전무 사진. /메트로신문

전례 없는 불황 속에서도 도전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 기업이 있다. 직영 기반의 요식업부터 불링장, 마케팅, 부동산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가능성을 넓혀가는 엔엠에프다. 엔엠에프는 ‘이자카야 나무’를 운영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 ‘이자카야 나무’ 1호점을 개점하며 요식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엔엠에프는 현재 서울에만 15개 지점을 운영하며 연 매출 500억원을 기록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런 엔엠에프가 최근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엔엠에프 최용일 전무를 만나 사업 다각화의 배경과 향후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엔엠에프는 올해 외식 사업 다각화를

목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KBS 별관 인근에 프리미엄 숙성 고깃집 ‘나무가든’을 개점했다. 이는 엔엠에프가 선보이는 첫 프리미엄 숙성육 전문 매장으로, 숙성 한우와 한돈을 기반으로 한 메뉴와 프라이빗한 공간을 내세워 고품격 외식 문화를 제안하고 있다.

숙성육 외식 브랜드로의 전환은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결정이었다.

최용일 전무는 “그동안의 사업은 주로 저녁 시간대와 심야 고객을 타깃으로 운영됐지만,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소비문화가 변화하며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매출 상승 추세를 보며 숙성육 시장에서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엔엠에프의 사업 다각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스포츠 산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며 불링장 사업을 시작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최 전무는 “이자카야 사업 외에 불링장 운영을 시작하며 스포츠 산업으로의 확장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지금도 불링장을 운영 중이지만, 스포츠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사업 다각화에 아쉬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사업 다각화 과정에서는 맛과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다. 최 전무는 ‘나무가든’의 운영에 대해 ‘첫 달 치고는 매출이 나쁘지 않았다’며 ‘한우는 투플러스 한우 중 8번, 9번만을 사용한다. 숙성 기간은 평균 14~15일을 원칙으로 하고, 인테리어는 일반 고깃집과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대리석 디자인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목표 매출을 4억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무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며 ‘나무가든’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그는 “폴키지 프리를 통해 고

객들이 와인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며 “경기가 어려운 만큼, 돼지고기라도 편히 드시고 자주 찾아주시면 그것이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프리미엄 고깃집에서는 밑반찬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나무가든’에서는 명이나물, 피클, 고추잡채 등 다양한 밑반찬을 준비했다”고 전하며 “결국 손님들이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엔엠에프는 ‘이자카야 나무’의 소규모 버전인 ‘이자카야 나무 라이트’ 브랜드 확장도 추진 중이다.

엔엠에프는 앞으로도 부동산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며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 전무는 “현재 부동산과 경매를 전담하는 별도 팀을 운영 중”이라며 “임대 사업뿐 아니라 실버산업, 레저 스포츠, 숙박업 등 성장 가능한 분야에 진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장현국, 액션스퀘어 블록체인 사업으로 복귀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아버지’로 불리는 장 대표 내달 1일부터 액션스퀘어 CEO 역할 장 대표에 50억 규모 유상증자 진행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가 2022년 지스타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위믹스 아버지’로 불리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액션스퀘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총괄 담당하며 게임업계에 복귀한다.

12일 액션스퀘어에 따르면 장현국 대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액션스퀘어의 공동 대표로 내정돼 최고경영자(CEO) 역할을 하게 된다. 장 대표는 액션스퀘어에서 블록체인 신사업과 게임 개발사 투자라는 신영역을 개척해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김연준 액션스퀘어 대표와 함께 회사를 이끌게 된다. 현재 장 대표는 위메이드에서 재직 중인 상황이다. 장현국 대표는 2018년 1월 위믹스를

론칭한 주인공으로 ‘위믹스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위믹스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게임 개발사 투자와 관련해선 라이온하트, 시프트업, 매드엔진 등 국내 굵직한 게임 개발사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기획하면서 큰 성과를 회사에 기여한 바 있다.

아울러 액션스퀘어는 장 대표에게

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액션스퀘어는 에스티45호신기술투자조합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에스티45호신기술투자조합은 20명이 출자한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는 제모피이다.

수차례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 액션스퀘어는 조달 자금을 블록체인 신사업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액션스퀘어는 장대표가 위메이드 대표 시절 블록체인 사업 관련 제휴를 맺기도 했으며 관련 게임 개발도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어 이번 장대표의 복귀가 기대할만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액션스퀘어는 ‘블레이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회사다. /최빛나 기자 vitna@

지엔티파마 ‘라디페어’, 日 홈쇼핑 론칭 확정

항산화·안티에이징 특화 제품



‘2024 용인특례시 Y-Trade 수출상담회’에서 지엔티파마 스킨 헬스 사업본부 김대용 실장(오른쪽)과 일본 JDB NETWORK 우미노 총괄이 MOU를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지엔티파마는 일본의 대형 화장품 유통업체와 손잡고 코스메슈티컬(화장품과 의약품의 합성어) 브랜드 ‘라디페어’의 일본 시장 진출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라디페어는 지엔티파마의 뇌신경질환을 포함한 노화 관련 질환 치료 신약 개발 26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항산화와 안티에이징에 특화된 제품이다.

지엔티파마는 지난 8월 일본 내 대형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JDB 네트워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내년 3월 일본 홈쇼핑에 론칭을 확정했다.

라디페어는 지난 9월 한국 뷰티 전문 잡지 얼루어가 주관한 ‘K-뷰티 워너

로 선정되며 기술력과 품질을 입증한 바 있다. 지엔티파마는 “해당 상품은 일본 내 200명의 뷰티 전문가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선정한 결과로 현지 시장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LG화학 국내 히알루론산 필러 캐나다 시장 본격 진출

LG화학이 국내 미용필러 업계 최초로 캐나다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LG화학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미용성형 전문가 및 관계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히알루론산 필러 ‘이브아르’ 공개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캐나다 진출을 시작으로 북미 시장에서 국산 필러의 입지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LG화학은 북미 및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캐나다에 집중해 왔다.

LG화학에 따르면 캐나다 미용필러 시장은 2023년 기준 4000억원 수준을 기록했고, 오는 2030년 7000억원 규모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하 기자

LG생활건강, ‘유시몰 칫솔’ 400만개 판매

유시몰 공개 4년 만의 성과

LG생활건강은 고급 구강 관리 브랜드 ‘유시몰’에서 칫솔 제품군이 누적 판매수 400만개를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누적 판매량 기록은 LG생활건강이 지난 2021년 국내에서 유시몰을 공개하고 4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브랜드 대표 제품인 ‘레귤러 칫솔’은 탄력 있는 초미세모로 프라그와 구취를 제거하는 효과를 갖췄다. 칫솔 상단부의 초미세모는 0.01mm 두께로 치아 사이 사이에 꼭꼭 들어가 부드럽게 프라그를 제거하고, 칫솔 하단부는 둥근 형태로 설계돼 치아 표면의 프라그를 없앤다는 것이 LG생활건강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유시몰 ‘클래식 칫솔’의 경우, 치아 다섯 개를 한꺼번에 닦을 수 있는 45mm 길이의 칫솔 머리가 특징이다. 긴 길이와 함께 곡선 형태를 적용해 밀착력을 높였다. 칫솔 머리 부분은 3.5mm 두께로 얇게 만들어서 편안한 사용감을 전달한다.

LG생활건강은 두 제품의 차별화된 가치를 담아 ‘유시몰 칫솔 벨류팩’을 출시한다. 유시몰 벨류팩은 레귤러 칫솔과 클래식 칫솔 2종으로 구성됐고, 각 벨류팩은 칫솔을 6개씩 담고 있다.

또 브랜드를 상징하는 색상 ‘로열그린’과 ‘코랄핑크’가 유시몰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표현한다. LG생활건강은 유시몰 칫솔 벨류팩이 선물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바사, mRNA 활용 백신개발 박차

호주 HREC 최종승인 받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개발이 가시화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mRNA 기술을 활용한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G BP560’의 1/2상 임상시험계획을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일본뇌염과 라싸열 바이러스의 백신 개발은 mRNA 백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넥스트 팬데믹 대비 ‘100일 미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동일 바이러스 계열에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Disease-X)에 대한 백신을 수 주 안에 개발함으로써

100일 안에 팬데믹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2년 국제기구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와 4000만 달러의 초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기로 협약을 맺고 해당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후기 개발 단계에 돌입하면 CEPI는 최대 1억 달러를 추가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에 적용돼 처음 상용화된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은 유전자 염기서열을 활용해 기존 플랫폼 대비 신속한 대량생산 체계 구축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이 때문에 팬데믹 대응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며 치료제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 빠른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이세경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고려아연 '올해의 금속공예가'에 김용주·임종석 작가

작년부터 직접 주최... 예술활동 지원 오는 16일까지 수상작가 기념 전시

고려아연이 11일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2024 올해의 금속공예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4 올해의 금속공예가상'은 지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고려아연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를 시작으로 10월 포트폴리오와 활동자료, 실물작품 등을 토대로 1차와 2차의 심사를 거쳐 김용주, 임종석 작가가 최종 선정됐다. 최종 수상자 2인에게는 각 1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전시와 프로모션의 기회가 제공된다.

'올해의 금속공예가상'은 우리나라



11일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2024 올해의 금속공예가상 시상식에서 서도식 운영위원장(왼쪽부터), 임종석 작가, 김용주 작가, 정무경 고려아연 지속가능경영부문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려아연

공예 가운데 현대금속공예 분야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활약해온 45세 이하

작가들 중 왕성한 창작 활동과 뛰어난 창의력으로 두각을 나타낸 작가를 매

년 하반기에 심사하여 2인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 수여식을 진행한다. 고려아연은 2013년부터 후원을 해왔고, 지난해부터는 직접 주최를 하며 12년째 연을 이어가고 있다.

수상 작가들의 기념 전시는 이달 1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인사아트센터 제6전시장에서 열린다.

정무경 고려아연 지속가능경영부문 사장은 "올해의 금속공예가상에 참여 해주신 모든 작가님들의 열정과 실력에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젊은 금속공예가들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현대금속공예 발전에 지속 공헌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광주은행-신한은행, 상생협력 업무협약

광주은행과 신한은행은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역 금융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고병일 광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LG U+, '키즈토피아' 과기부 장관상

LG유플러스는 자사 키즈 플랫폼 키즈토피아가 '2024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및 자율규제 성과공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민구 LG유플러스 메타버스프로젝트담당(왼쪽)이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롯데칠성음료, '그린패키징 공모전' 대상

롯데칠성음료는 전날 여의도 FKI타워에 열린 '제 14회 그린패키징 공모전'에서 '초경량 아이시스'로 환경부장관상(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성식 롯데칠성음료 품질혁신팀장(오른쪽)이 시상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스타벅스코리아, '캐리 더 메리' 행사

스타벅스 코리아가 13일부터 31일까지 캐리 더 메리(CARRY the MERRY) 행사를 전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진행되며, '스타벅스 딸기 라떼' 또는 '산타 베어리스타 케이크' 주문 시 수량 1개당 1000원씩을 자동 적립하여 최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스타벅스



교원 웰스, 국제소물리에협회 MOU 체결

교원 웰스는 한국국제소물리에협회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교원내외빌딩에서 장동하 교원그룹 부사장(왼쪽)과 고재운 한국국제소물리에협회 회장(오른쪽)이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원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가 진행한 나눔활동에 참여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카카오같이가치

카카오 "연말연시, 온정 나누세요"

사회공헌 플랫폼 통해 기부 캠페인 10만명에 '1000원 기부 쿠폰' 제공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가 오는 31일까지 연말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카카오같이가치는 '모두에게 다정을 건네고픈 연말'이라는 주제로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주변에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다정한 손길을 건네길 장려해 취지로 기획했다.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카카이가 이용자를 대신해 기부하는 '1000원 기부

쿠폰'을 선착순 10만명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제공한다. 기부쿠폰을 받은 이용자는 ▲독거 어르신 주거 개선 ▲해외 분쟁지역 주민 의료 지원 ▲보호소 유기견 치료 ▲자립준비청년 창작가 멘토링 지원 ▲결식우려 아동 식사 제공 등 총 5개의 추천 모금항 중 하나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이용자는 각 모금함에 원하는 금액만큼 직접 기부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연말에 돕고 싶은 이웃을 댓글로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카카오프렌즈 춘식이 인형을 지급한다.

/이혜민기자 hyem@

부음

▲차운호씨 별세, 차정환(OCI홀딩스 대외협력실 상무)씨 부친상 = 12일, 아주대학교 장례식장 3층 35실, 발인 14일 오전 7시. 031-219-6654

▲편일범씨 별세, 허삼순씨 배우자상, 편수원(대신증권 상품내부통제부 부부장)·수호·

호은씨 부친상 = 12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14일 오전 10시. 02-860-3500

▲최희순씨 별세, 이상원(전 경남도의원)씨 모친상 = 11일, 밀양시 내이동 밀양한솔 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14일. 055-356-7213

오늘의 날씨

12월 13일 (금)
음력: 11월 13일

수도권 날씨
-2 ~ 3℃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5/3, 동두천 -4/3, 가평 -4/4, 파주 -5/3, 서울 -2/3, 양평 -4/4, 인천 -1/3, 수원 -1/2, 용인 -1/2, 평택 -3/3, 백령도 1/4

해돋이 / 07:38 | 해질 / 17: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SKT, '대한민국 디지털광고대상' 4관왕

디지털 영상 부문 등 수상

SK텔레콤은 2024대한민국 디지털광고대상에서 디지털 영상과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금상을 포함해 총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은 한국 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광고 시상식이다. 올해는 개인 부문 2개와 작품 부문 7개(소부문 24개)를 나눠 심사가 이뤄졌다.

공식 유튜브를 통해 지난 9월 선보였던 SK텔레콤 최초 단편영화 '중독: 나한테만 보이는'은 디지털 영상 부문 금상을 차지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경희사이버대, 모빌리티 교육서비스 강화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협약 체결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지난 10일 자동차융합기술원(원장 이항구)과 미래 모빌리티 신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변창구 경희사이버대 총장, 신봉섭 기획재정처장, 이정민 글로벌·대외협력처장, 이재훈 기획재정처 부처장, 김광일 전자정보공학과 교수, 정준호 전자정보공학과 교수와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

장, 정원식 디지털플랫폼 연구본부 본부장, 원수지 정책기획본부 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및 교육 분야에서 협력하고, 산업체 실습시설 견학 및 체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변창구 총장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자정보공학과 뿐만 아니라 추후 계약학과 개설 등의 기회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의 상호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태광그룹 임직원, 크리스마스 산타 변신

그룹홈 청소년 대상 선물 증정

태광그룹이 연말을 맞아 그룹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

태광그룹은 12월 한 달간 한국그룹홈협의회와 연계해 '미래를 키우는 큰 빛'을 주제로 서울·울산지역 그룹홈 가정 청소년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계획

이라고 12일 밝혔다.

태광그룹은 11월 말부터 한국그룹홈협의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준비했다.

준비된 선물들은 태광그룹 임직원들이 직접 포장해 '태광 루돌프 버스'로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한다.

/양성운 기자 ysw@



나무가든

프리미엄 숙성한우, 숙성한돈 전문점

나무가든 동여의도점 샤넬 이벤트

1등

샤넬핸드백



2등

샤넬향수



* 현장방문 참여 가능

- 이벤트 기간 2024. 11. 14. ~ 12. 31. (1.5개월)
- 당첨자 발표 2025. 1. 3.(금) 17시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 응모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샤넬이벤트 참여

* 이벤트 참여는 나무가든 현장에서만 가능

- 경품
 - 1등 샤넬핸드백 (1명) 1800만원 상당
 - 2등 샤넬향수 (15명)
 - 3등 나무가든 5만원 식사할인권 (30명)
 - 4등 나무가든 3만원 식사할인권 (50명)
 - 5등 나무가든 생맥주 2잔 (200명)

- 기타
 - 식사할인권은 고기손님에 한해 적용 (식사손님 불가)
 - 생맥주는 식사손님/고기손님 모두 사용 가능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기간 : 2025. 2. 28까지
 - 생맥주 1인 2잔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은 테이블당 1회에 한함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중복사용 가능

· 문의 02-785-8883

·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4, 호성빌딩 2층
여의도역 5번 출구, 셋강역 1·2번 출구, KBS 별관 옆

용기와 만용



차 상 근 의
관망과 훈수

‘용기(勇氣)’의 국어사전 뜻은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다. 중국말로는 위험을 두려워 않는 기개를 말한다. 통속적으로는 ‘배짱이 좋다’란 말로 흔히 쓰인다. 영어 단어 ‘courage’를 우리는 용기로 표현해 쓰고 있다. 이는 위험이나 불이익을 분명히 알고도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 뜻을 좀더 들여다 보면 지극히 어렵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다고 여긴 일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필수덕목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용기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 용기가 부족한 사람을 흔히 ‘겁쟁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도덕적 용기란 말의 의미에 대해 곰씹어 봐야겠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의 위험이 더 커 의심이나 두려움이 있는데도 도덕적 이유로 행동하는 용기이다. 고통, 위험, 불확실성, 협박에 직면하는 나약하지만 강인한 인간의 선택이자 의지로 볼 수 있다.

‘12.3 계엄정국’에 수많은 시민들이 결연한 의지와 기개로 반민주적 폭력에 맞섰다. 12월 엄동설한에 전국 곳곳에서 거리로 나와 낄밤을 지새며 저항의 가치를 들었다. 이들의 용기있는 행동때문에 용기있는 사람이 소수일 것이란 그 본래 의미는 상당히 무색해졌다고 할 만하다. 요며칠새 말없이 내뿜던 필부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실로 오랜만에 목격했지만 특히 눈길끄는 ‘용자’가 보였다. 지난주말 부산의 한 계엄반대 집회현장에서 연설한 여고 3학년생이다.

이 학생은 “막 걸음마를 떤 제 사촌동생들과 남동생이 먼훗날 역사책에 쓰인 이 순간을 배우며 제게 물었을 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여기 나와 (의견을) 말했다고 알려주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라며 발언을 시작해 10여분간 비상계엄의 부당성과 기성 정치인을 비롯한 국가 지도층의 오만, 무능, 비겁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한국이 늘 싫어 떠나고 싶었으나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는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했다. 이어 국권을 버린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가자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18살 앳된 소녀의 연설이 인터넷상에 회자되자 그 용기에 찬사가 쏟아졌다. 현실을 외면해온 어른들이 미안하다는 댓글이 이어졌고 철부지같던 MZ세대 청소년들에 신뢰를 갖게 됐다는 답글도 부지기수였다. 진정한 용기는 굳센 기운, 기질, 호기, 무모함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특히 기질처럼 인간 육체에 기반한 물리적 용기와는 확실히 성격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또 담화를 발표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조기퇴진을 기대했지만 현 사태의 단초를 거대야당의 잘못으로 돌리며 전혀 그럴 뜻이 없음을 밝혔다. 용기가 지나치면 만용이라고 표현한다. 한자에서는 ‘사리를 분간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는 용맹’으로도 정의한다. 애초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과 탄핵, 검찰총장 등의 과정을 거치며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모습이 부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집권후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보인 것은 만용이었다. 이제는 그야말로 사리를 분간 못하고 함부로 날뛰는 용맹스런 정치인이라 여론이 세상 가득하다. 자신의 행동이 만용임을 깨닫고 도덕적 용기를 보여주는 소수가 되기를 바란다. /sk8472@metroseoul.co.kr

총암고와 동덕여대를 바라보며



기지 수첩
이 현 진
(정책사회부)

동덕여대와 총암고. 최근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된 학교를 꼽자면 두 곳으로 추려진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공학 전환 반대 시위 이슈가 사회면에서 비중을 줄이는 시기, 총암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른바 ‘총암파’ 구성원의 연결고리로 언론에 연일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내부 ‘총암파’를 활용해 비상계엄 사태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총암고 8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7회, 여인형 방첩 사령관은 17회 졸업생이다. 윤 대통령이

직에 전진 배치한 총암고 출신 동문들을 두고 신관 ‘하나회’라는 소리까지 나온다. ‘그들’이 함집해 벌인 불똥은 엄한 곳에 튀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총암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비난과 조롱을 받거나, 학교에 수백 통의 항의 전화도 빗발치며 도 넘은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교명을 계엄고로 바꿔라’는 조롱도 나온다. 과거 명문 사립고로 이름을 날리던 총암고는 이번 사태로 ‘애꿎은 조롱거리’가 됐다.

결국 총암고 학생들은 교복을 벗었다. 총암고는 학생 안전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졸업식이 예정된 내년 2월 6일까지 재학생들에게 임시로 교복 대신 자율복을 입도록 조치하면서다.

동덕여대도 곤란을 겪고 있다. 대학이 남녀 공학 전환을 논의하자 일부 학생들이 이에 반발해 학내 시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기물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학교 추정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원에 달하면서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은 ‘폭력 시위’를 했다는 과오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결국 동덕여대 출신 학생은 ‘채용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기업계 이야기마저 공공연히 나온다. 사실상 이는 우스갯소리를 넘어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특정 학교 출신을 배제하는 데 대해 노동법상 뚜렷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가 같다고 개개인의 뜻도 같은 건 아니다. 일부 과격한 시위에 동참한 학생들도 있지만, 동덕여대 재학생 전부의 책임은 아니다.

총암고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인사들은 총암고를 졸업한 지 40년이 지났고, 현재 재학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 시대 총암고 학생들이 윤 대통령 이름 아래 가려지지 않길 바란다. /h/j@

오늘의 운세 12월 13일 (음 11월 13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뜻밖의 초대는 당신을 유혹하는 것이니 주의. 48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미뿔 둔 일이 있다면 오늘 처리. 60년생 이미 대결은 시작됐다. 72년생 투자에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 84년생 분수를 알고 행동해야.
- 소** 37년생 사랑에는 언제나 약간의 망상이 담겨있다. 49년생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라. 61년생 진실은 밝혀져 들수록 때가 묻는다. 73년생 굴치 아픈 일은 숨기지 말고 주변과 소통하고 상의. 85년생 노력 없는 발전이 있기를 바라지 말 것.
- 호랑이** 38년생 꿈은 도망가지 않는다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 자신. 50년생 게으른 사람은 뒤편이 핑계만 댈다. 62년생 굳은살이 생겼으니 덜 아프다. 74년생 겨울은 곧 봄을 동반하니 희망이 시작. 86년생 중심이 없으니 안정을 하지 못한다.
- 토끼** 39년생 칠전팔기도 있으나 칠중칠금도 있으니 지인 조심. 51년생 시간약속을 준수하라. 63년생 할 일 없이 인생이 지루하게 느껴진다. 75년생 말이 씨가 되니 신중하게 배려라. 87년생 속이 상해도 남의 일이 아니니 참아야 할 수밖에.
- 용** 40년생 공과 사를 분명히 따져야 하는 날. 52년생 토끼띠 동로가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64년생 고소득 투자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 76년생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마무리해야. 88년생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순간 성공은 시작.
- 뱀** 41년생 배우자의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53년생 자존감을 나를 지켜주는 힘이다. 65년생 약간의 먹구름이 보이니 조심. 77년생 무슨 일든 팔팔 끼고 성공을 바라지 마라. 89년생 남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 말** 42년생 가지 못한 길에 미련을 두지 마라. 54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결실이 보인다. 66년생 가족의 이해를 구할 일이 생긴다. 78년생 조직에서 문서 운이 있으나 결정은 다시 상의해서. 90년생 검은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 양** 43년생 인맥을 활용하여 고마운 정보를 획득. 55년생 남을 배려하면 그만큼 나에게 돌아온다. 67년생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79년생 어찌든 내일도 태양은 늘 그 자리에 떠 있다. 91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 원숭이** 44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매사에 궁정의 마음으로. 56년생 우물거에서 송충 찾지 말고 손사대로. 68년생 부자로 살고 싶다면 입안의 허처를 구는 사람을 경계. 80년생 진취적 행동이 타의 모범. 92년생 신용은 가장 큰 자산.
- 닭** 45년생 새로운 이성과 만남을 조심. 57년생 주변이 수상하니 언행에 신경 써라. 69년생 슬픔도 힘이 될 수 있으니 슬퍼하고 힘내라. 81년생 이러니 저러니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내 잘못을 반성. 93년생 인간은 시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 개** 46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날. 58년생 해피가 직전 가장 어두운 밤. 70년생 온전한 새로움은 없을 듯. 82년생 가정의 화목은 누가 대신해주지 못한다. 94년생 지출이 되어도 마음이 간다면 가는 대로 행동.
- 돼지** 47년생 결혼은 돌이 하는 거지만 인생은 아차피 혼자. 59년생 변화의 날이니 외모도 남다르게. 71년생 시간을 값어치는 느낌. 83년생 이렇가 저렇가 망설이다 보면 기회는 사라져간다. 95년생 지난 일로 고민하다가 위축이 되니 빨리 접는 것이.



김상회의四季 인공지능 시대의 명리학

어떤 인공지능 개발자는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 말은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론하고 논증하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급격하게 능력이 좋아지는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공장의 생산성 향상, 마케팅 아이디어 개발, 보고서 작성,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은 물론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 특정 부문의 전담 비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까지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금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인공지능이 뺏을 것이라는 걱정은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결코 사람을 앞설 수 없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오래된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는 고전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고전 중에서도 사람의 운명과 인생의 의문점을 내다보고 해법을 제시하는 명리학은 인공지능이 절대 넘볼 수 없다. 인공지능이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운명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단순히 정보와 지식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명리학을 비롯한 인류의 고전에는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증빙이다. 명리학은 명실상부하게 동양 고전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긴 세월 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로 논리는 더 탄탄해졌고 수많은 사람의 사유와 경험이 더해지면서 살아가는 데 도움 되는 지혜가 더해졌다. 이런 명리학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건 불가능하다. 단순한 지식 이상의 인생 해법을 담고 있는 학문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인공지능 전성시대가 온다고 해도 인류가 남긴 고전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을 학문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특별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8	9	4	3		1		7
5			9		8	3		
			1				8	
		3	7					
9								3
				4	9			
	7				3			
		6	3		2			4
3	2		9	1	8	7	6	

2	3		9	5		6	8	4
1		8					7	
						2		
			3	7				2
5		9				4		3
7				6	1			
		3						
	1					7		6
6	8	2		4	3		9	1

1	6	9	8	7	2	8	9	
9	2	7	9	6	8	7	1	8
2	7	8	9	1	2	8	9	6
8	8	6	1	9	7	9	2	1
8	9	7	2	8	1	6	2	9
2	9	1	6	2	8	9	7	8
9	1	2	8	8	9	2	6	7
6	2	8	7	2	9	8	9	1
7	8	9	2	9	6	1	8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7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7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보르도 화이트에 빠질 시간 “韓시장 성장세 주목”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인터뷰

佛 로낭 라보르드 보르도 그랑크뤼연합 회장



로낭 라보르드 보르도 그랑크뤼연합(UGCB) 회장이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UGCB와 보르도 2021 빈티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롭스코치 시즌(구 소펙사 코리아)

“보르도 와인은 해마다 아로마도, 밀도도 다르다. 매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 보르도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다. 여기에 포도나무를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물을 대는 관개농업 등이 금지되다 보니 작황을 예측할 수 없듯, 매년 어떤 와인이 탄생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생산자도, 소비자도 해마다 빈티지가 들려주는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뿐이다.

프랑스 보르도 그랑크뤼 연합(UGCB)의 로낭 라보르드 회장은 지난달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2024 보르도 그랑크뤼 전문인 시음회’에 참석해 메트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2021년은 드라이 화이트 와인에 최적의 기후 조건으로 신선하며 화려한 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레드 와인 역시 아로마의 표현력이 뛰어나며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라보르드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UGCB를 이끌고 있으며, 보르도 포름 지역에 위치한 와이너리 샤프트 클리네의 오너이기도 하다.

UGCB가 주최하고 롭스코치 시즌(구 소펙사 코리아)이 주관한 이번 시음회는 65개 그랑크뤼 와이너리들이 한국을 방문해 2021년 빈티지를 선보인 자리였다.

‘그랑크뤼(Grand Cru)’는 프랑스어로 뛰어난 포도밭을 뜻한다.

매우 우수한 품질의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나 포도밭에 부여되는 명칭이다. 현재 132개의 최고 샤프들로 구

성된 UGCB는 1973년에 설립됐다. 수확을 끝내고 11월부터 다음해 3월 사이에 생산자들이 30여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직접 와인을 소개한다. 와인 애호가 입장에서는 연말이면 새로운 빈티지를 경험할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와인 행사 중 하나다. 올해도 800명에 가까운 와인 수입업체와 소믈리에 등이 참석했다.

2021년은 최근 몇 년만에 극단적인 기후가 없었던 해였다. 따뜻해 일찍 재배를 시작했지만 수확은 예년과 비슷했다. 그만큼 포도가 천천히 익어갔고, 부드럽게 숙성했다. 포도가 충분히 익으면서도 신선할 수 있었다.

라보르드 회장은 “고온 건조했던 2020년과 비교하면 2021년은 보르도의 특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균형과 순수미를 느낄 수 있다”며 “빈티지 특성도 있지만 10여년 전부터 보르도 와인은 그랑크뤼라도 숙성잠재력도 있지만 바로 마셔도 좋은 와인으로 만들어 지고 있

다”고 설명했다.

한국 와인시장에서 보르도 와인의 성장세도 주목할 만 하다. UGCB의 아시아 투어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생산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그는 “한국은 보르도 그랑크뤼에 있어 중요한 시장으로 2022년 수입량이 2020년 대비 3배 가 늘었다”며 “올해 전 세계 와인 소비가 다소 줄었다고 해도 한국 시장의 성장세는 다른 국가 대비 유독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보르도 그랑크뤼 와인 수입국가를 규모로 보면 한국은 10위 안팎이다. 20년전 만해도 20위 밖에 있었다.

라보르드 회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시음 행사를 넘어 보르도와 한국 간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하고 깊은지를 잘 보여줬다”며 “UGCB는 한국과의 이런 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진실과 팩트 사이 ‘혼동’

모임 내 A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그는 사람들에게 “학교는 어디 나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집은 어디냐” 등을 묻곤 했다. 누군가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좋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또 다른 이는 ‘신상 명세를 캐서 약점을 잡으려 한다’면서 그를 꺼림칙해했다. A의 같은 행동을 두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게 흥미로웠다. 더 재밌는 건 A가 위 질문들을 모든 이에게 반복해서 던졌다는 것이었다. 그는 타인에게 관심이 있지도, 남의 약점을 쥐고 흔들려고 한 것도 아닌 그냥 딱히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질문 세례를 퍼부은 것뿐이었다.

정신과 전문의 양창순 박사가 쓴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저자는 우리가 진실과 팩트를 혼동한다고 지적한다. 대개는 그들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진실과 팩트가 다르며 그 사이에서 얼마든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책은 밝힌다. 예컨대 길을 가는데 누가 나를 쳐다본다고 하자.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건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노려본다고 생각하면 피해의식이 생겨난다. 만일 그가 내 용모에 반해서 눈으로 쫓는다고 여긴다면 약간의 과대망상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다.

저자는 “우리가 어떤 때는 길 가는 사람을 아무 뜻 없이 쳐다보듯, 남들도 내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면서 “그렇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양창순 지음/다산북스

지 않고 ‘왜 나한테?’라며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진다”고 말한다. 이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일반적이면서 특수하다. 내게 생긴 문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겪을 수 있는 문제란 뜻이다”며 “일반화해 볼 수 있을 때 우리 그 문제를 조금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능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책은 이 세상에 상대방이 100% 잘못하고, 나는 100% 잘해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나의 문제와 상대방의 문제가 만났을 때 일이 잘못되고 꼬이는 법”이라며 “처음부터 잘못된 상대라는 것을 알고 만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일침을 놓는다.

일이 잘못돼 원망과 피해의식이 쌓일 때 나의 문제는 어디까지인지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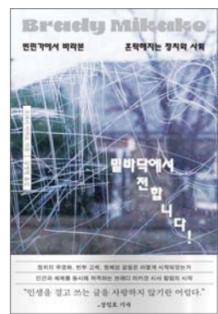
258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ik1@

밀바닥에서 전합니다!

책의 저자는 일본에서 영국으로 이주해 빈민가에 정착한 브래디 미카코다. 트럭 운전사인 그의 배우자는 노동자 계급 출신으로 평생을 노동당에 투표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극우 정당 지지를 선언한다. 책은 전통적으로 노동당 지지층이던 빈민층이 이주민과의 일자리 싸움에 지쳐 극우 정당으로 돌아서는 과정을 추적한다. 일자리는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에게 옮겨

가고 실업자가 된 영국인은 빈민으로 전락한다. 저임금 일자리를 놓고 다투는 그들의 위에는 인건비를 줄이며 이익만 쫓는 상류층이 있다. 저자는 “영국의 하층민이 극우 정당에 올라탄 것은 오랫동안 상층의 정치가 하층민을 완전히 무시해왔기 때문”이라며 “하층민의 우경화는 정치에 대한 복수라 해도 무방하다”고 지적한다.

384쪽. 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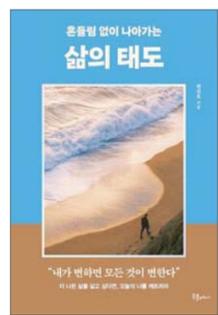
브래디 미카코 지음/김영현 옮김/다다사재

삶의 태도

‘분노를 한꺼번에 폭발시키지 말기, 욕 안 하기, 짜증 부리지 않기...’ 매년 새해가 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하는 결심들이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이러한 다짐들을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다. ‘사람의 천성은 바뀌지 않는 걸까.’ 지난 40년간 ‘인간의 마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탐험해온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긍정적으로 변화한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다. 그건 바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삶의 태도였다. 책은 변화를 이끌 5가지 마법의 도구로 ▲유머 ▲공감 ▲회복력 ▲메타인지 ▲긍정 심리학을 제시한다. “아기의 첫걸음이 미미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첫발을 떼고 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듯이, 작은 시작이 있어야 더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380쪽. 2만2000원.



반건호 지음/북플레저

가장 평범한 아픔

한국은 건강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다. 지난 2022년 기준 일곱 가구 중 1가구가 빈곤층에 해당하며,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40.4%에 달한다. 허나 ‘가난의 자격’을 얻은 사람은 극소수다.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수년째 3퍼센트라는 견고한 철옹성을 지키고 있다. 책은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사건이, 이미 버틸 수 있는 한도의 경계에 다

다른 이들에게는 결정적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 역경과 고통은 우리 몸에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상처를 남긴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모두가 건강권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공병원’과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건강권의 기본 요소라고 말한다.

308쪽. 1만8000원. /김현정 기자



김명희 지음/이글루



▲ 일본, 올해의 한자로 金 선정... “비자금문제, 올림픽 등 이유”
▲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서 첫 철수

/사진 뉴시스

▲ 헝가리 “젤렌스키, 헝탄휴전 거부”
▲ 캐나다, 기준금리 0.5%p인하 “트럼프 관세 탓”



▲ 외신,尹 ‘내란죄 불성립 호소’ 4차 당화 긴급 타진
▲ 美 하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가결

/사진 뉴시스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연말행사 줄어
주류업계
홍술족 공략
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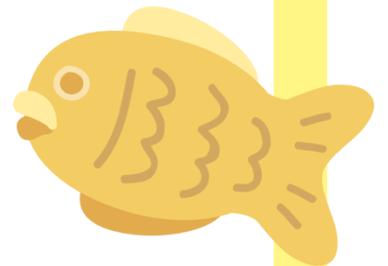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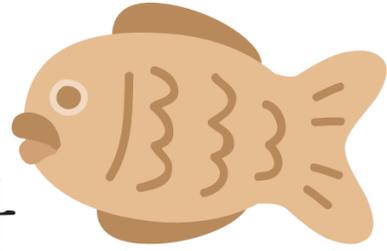


Life

고려아연
올해의 금속공예가
시상식 개최
L4



세계적 인기로 매출이 '팔딱' 모양·맛으로 모두의 입맛 낚다



메가하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빙그레 '떡붕어싸만코'

재밌는 붕어 모양에 통팔시럽 가득 넣어
겨울에 더 많이 찾는 아이스크림으로

경기불황에도 성장 꾸준 '스테디셀러'
출시 초기보다 양 많아져 포만감까지

추운 겨울이 되면 더 많이 찾게 되는 아이스크림이 있다. 빙그레의 아이스크림 제품 '떡붕어싸만코(붕어싸만코)'다.

1991년에 첫 선을 보인 '붕어싸만코'는 '붕어빵은 겨울에만 먹는 간식'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여름에도 시원하게 즐기는 붕어빵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아이스크림이다. '붕어싸만코'의 싸만코는 '싸고 많고'의 줄임말이라는 재미있는 스토리가 담겨있다.

붕어빵 모양의 과자 속에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통팔시럽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출시 당시 맛과 모양 덕에 아이디어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지금도 '붕어싸만코'는 제과형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 통계정보에 따르면 닐슨코리아 기준 스토아 브랜드를 제외하고 올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아이스크림은 빙그레 '붕어싸만코'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제품은 381억원의 매출을 올려 1위에 올랐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646억원이 판매됐다.

경기 불황인 와중에도 아이스크림 분야에서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붕어싸만코'의 고정 팬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장수상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줄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이와 달리 빙그레의 '붕어싸만코'는 출시 초기보다 크기도 커지고 양도 많아져 출출한 오후 시간 공복감을 달래기에도 안성맞춤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붕어싸만코'는 빙그레의 수출 효자 상품이기도 하다. 미국과 동남아 등지에서도 특이한 모양으로 관심을 끌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빙그레는 지난 5일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수출의 탑은 매년 무역의 날을 맞아 한국무역협회에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1년간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빙그레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1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면서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게 됐다.

빙그레는 수출 증대의 요인으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한 해외 현지 판매 확대가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메로나의 경우 미국 메인스트림 시장에 입점하며 다양한 맛과 형태의 신제품 출시를 통해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늘렸고, 중국에서는 바나나맛우유를 편의점과 코스트코에 입점시키며 메인스트림 시장 규모를 확대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제품의 독특한 모양과 맛을 강조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붕어싸만코'를 연평균 600만개 이상 판매되는 메가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붕어싸만코'는 베트남을 비롯해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와 미국, 중국, 브라질 등 전 세계 18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베트남 로컬 브랜드의 제과형 아이스크림보다 2배 가량 비싼 판매가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수출액은 꾸준히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인기요인으로는 한류 영향 탓도 있지만, '붕어싸만코'의 물고기 모양이 수산물과 친숙한 현지인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빙그레는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호두과자 붕어싸만코' '딸기블라썸 붕어싸만코' '녹차 붕어싸만코' 등 색다른 제품 출시를 이어오고 있다.

베트남서 연평균 600만개 이상 판매 등 특이한 모양으로 미국·동남아서 인기 ↑

슈크림·초코·호두과자 등 다양한 맛 선봬 한정판 출시로 색다른 입맛 저격하기도

지난 봄 한정판으로 출시한 '딸기블라썸 붕어싸만코'는 붕어 모양의 과자 사이에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채워 넣어 기존 '떡붕어싸만코'와 차별점을 뒀던 세대 사이에서 관심을 끌었다. 현재는 '떡붕어싸만코' '슈크림 붕어싸만코' '초코 붕어싸만코' '호두과자 붕어싸만코'를 판매하고 있다.

한편, 빙그레는 탄탄한 실적과 그룹 리브랜딩을 추진 중이다. 빙그레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내년 5월 지주회사 빙그레홀딩스와 사업회사 빙그레로 나누는 인적분할을 발표한 바 있다.

지주회사인 빙그레홀딩스가 신사업 투자와 자회사 관리 등을 맡고, 사업회사인 빙그레가 사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 등 지속 성장을 추구한다. 빙그레홀딩스가 빙그레와 해태아이스 등을 자회사 거느리는 구조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초코 붕어싸만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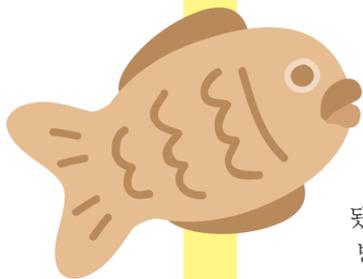
슈크림 붕어싸만코



호두과자 붕어싸만코



한정판 딸기붕어싸만코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휴스턴, 골든스테이트에 91-90 승리
...NBA컵 4강 진출 /사진 뉴시스
▲한국 주니어 빙속 선수단, 2차 월드컵
금5, 銀4 쾌거

▲프로축구 K리그 동계 훈련지, 이번에도 동남아?
▲손흥민, UEL 레인저스전 활약으로 토트넘 무승 부진 끊을까



▲출전 시간 줄어든 황희찬 '이적설' 휩싸여 /사진 뉴시스
▲최승탁 대구배드민턴협회장,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 출마